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30권 제1호 (통권 102호) / 2025. 3

# 신앙과 학문

제30권 제1호 (통권 102호), 2025년 3월호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감사가 정서적·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이원준 / 이희진  
The Effects of Gratitude on Emotional,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Christianity | Won-June Lee / Hee-Jin Lee
- 035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최용준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of Diaspora Huguenots  
Yong Joon (John) Choi
- 057 영문학 연구의 반성경적 전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현숙경  
The Anti-Biblical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and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deology | Sook Kyong Hyun
- 083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모색과 제언 | 김지원  
Searching for Lifestyle Medicine from a Christian Worldview | Jiwon Kim
- 105 사람들봄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 김희영  
A Christian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Caring Theory | Heeyoung Kim



# 감사가 정서적·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Gratitude on Emotional,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Christianity**

이원준 (Won-June Lee)\*\*

이희진 (Hee-Jin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gratitude on emotional and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and depression, and to investigate how the presence of Christian faith moderates these effects.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with responses obtained from 624 participants (359 men and 259 women) who were registered with a survey company's nationwide panel, encompassing Seoul, five major metropolitan cities, and nine province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hristians demonstrate a higher tendency toward gratitude and exhibited better levels of emotional and social well-being than non-Christians. Second, the effect of gratitude in enhancing emotional and social well-being and internal resourcefulness, along with the reduction of depression through internal resourcefulness, is observed in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Third, the positive effect of gratitude on improving internal resourcefulness is further amplified through social well-being in Christians, while for non-Christians, this effect is mediated through emotional well-being. Thus, internal resourcefulness in Christians is enhanced through social well-being, whereas in n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10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창신대학교 (Changshin Univ.)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wjlee@cs.ac.kr

\*\*\*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hjlee@handong.edu

Christians, it is enhanced through emotional well-being, highlighting a contrasting pattern.

Based on these key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practical approaches tha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n promoting internal resourcefulness as a means to alleviate depression.

**Key words:** gratitude,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depression, Christians

## I. 서론

### 1. 문제제기

감사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바람직한 인간의 특성”으로, 이러한 주장은, 고대의 종교적 경전들에서부터 현대의 사회과학연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원준·이희진, 2016 ; Emmons & Mishra, 2011). 왓킨스(Watkins et al., 2003: 449)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감사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이유를 종교인은 동료 인간(fellow-human)이 기여한 유익함 뿐 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神, Divine)의 도움을 크게 인정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기독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잘 시사해준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에 비해서 감사성향이 높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이원준·이희진, 2016).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한다. 절대자(divinity)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내면화된 기독교인들이 감사성향이 높은 현상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웰빙에 기여하는 긍정적 정서인 감사(gratitude)에 주목한 연구가 증가하였다(이승연·한미리, 2016). 감사는 대인관계에서의 기능적인 심리적 웰빙 및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노혜숙·신현숙, 2008 ; 김유리·이희경, 2012 ; 이승연·한미리, 2016). 감사함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Ryan & Deci, 2001)을 향상시킨다고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다(노혜숙·신현숙, 2008 ; 조한나·정영숙, 2011 ; 이승연·한미리, 2016 ; Emmons & McCullough, 2003 ; Watkins, et al., 2003 ; Emmons & Mishra, 2011).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감사의 순기능을 밝히고 있다. 감사는 스트레스 및 역경(adversity)에 대한 적응적 대처 및 개인의 성장을 돕고(Aspinwall, 1988 ; Folkman & Moskowitz, 2000 ; Emmons & McCullough, 2003 ; Emmons & Mishra, 2011), 낙관성 및 적응적 인지전략 증가시키고, 분노를 감소시킨다(Emmons & McCullough, 2003). 감사는 삶은 내·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감(competence)을 향상시키고(이원준·이희진, 2016 ; Watkins et al., 2003),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은 외, 2016)으로 밝혀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에몬스와 맥컬러(Emmons & McCullough, 2003: 388)는 “감사가 심리적 자원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영적 자원을 구축”함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감사의 순기능을 탐색한 국내 연구들은 감사가 심리적 자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데 집중된 경향이 있어, 감사가 사회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감사하는 자세는 인성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다(Emmons & McCullough, 2003: 337). 감사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이승연·한미리, 2016). 맥컬러(McCullough)는 감사가 상호 이타성(reciprocal altruism)을 강조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인 친사회적 상호성(prosocial reciprocity)을 불러일으킴을 밝힌 바 있다(Trivers, 1971 ; McCullough et al., 2002 ; Emmons & McCullough., 2003). 감사가 대인관계와 친사회적 행위(prosocial actions)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을 구축할 수 있다는 에몬스와 미슈라(Emmons & Mishra 2011)의 주장은 감사(gratitude)가 심리적, 정서적 안녕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키이스(Keyes, 1998)는 “진정한 행복은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사회의 번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도달하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웰빙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에 기초한 사회적 안녕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였다(이원준·이희진, 2016). 감사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에몬스와 맥컬러(Emmons & McCullough, 2003)는 감사가 영적 자원을 구축함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조명주와 전원희(2014: 573)는 감사가 영성에 유의한 영향( $\beta=.253$ )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 감사가 영적 자원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영성(spirituality)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더 큰 우주와 연결을 촉진시키는 초월적 힘과 온전한 힘에 대한 자각”이며, “인생을 이해하는 틀(framework)을 제공하며,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삶을 안정적으로 안내”한다고 주장하였다(이경열 외 2003: 714-715 ; Allport, 1950). 삶의 의미 및 목적, 상호연결성, 초월성(혹은 초월적 신념/경험) 등과 함께, 심리적 안정과 평정감(Howden, 1992 ; Westgate, 1996)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적 자원(inner resource)은 영성의 핵심구성소로 간주되고 있다(이경열 외, 2003). 선행연구는 내적 자원을 영성의 핵심 하위척도로 소개하면서, 자신감, 자신에 대한 믿음, 수용, 집중력, 일상생활의 여유와 함께 내외적 통제감을 내적 자원의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이경열 외, 2003). 왓킨스 외는 감사가 내외적 통제감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이원준·이희진, 2016 ; Watkins et al., 2003). 감사는 내외적 통제감을 포함한 긍정적 심리특성(예: 자신감, 자신에 대한 믿음, 수용, 일상



생활의 여유 등)을 내포하고 있는 내적 자원감(internal resourcefulness)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감사로 인해 향상될 수 있는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감사가 내적 자원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한층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내적 자원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이 미치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해 봄으로써, 내적 자원감 향상에 감사와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이 미치는 직·간접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와 우울감 감소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이지은 외(2016)의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감사가 내·외적 통제감, 자신감, 수용, 집중력, 일상생활의 여유 등을 내포하고 있는 내적 자원감을 증가시킨다는 왓킨스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이경열 외, 2003 ; Watkins et al., 2003). 이지은 외(2016)는 감사가 우울감 감소와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지만, 감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울감의 감소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탐색이 없었다. 앞서 논의했던 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을 감소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밝혀보는 것은 후속연구로서 연구의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감사가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추론 등을 토대로, 감사가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효과, 감사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이 각각 미치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전술한 관련 요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감사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이원준·이희진, 2016),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가 미치는 조절효과(modulating effect)를 병행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감사의 순기능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비교·분석한 실증 연구는 드물다. 감사가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밝힘에 있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가 정서적 안녕감 및 사회적 안녕감 그리고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그리고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의 조절효과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특성을 반영한 내적 자원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감사와 내적자원감과의 관계

#### (1) 감사와 내적자원감의 개념

감사(gratitude)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용이 드는(costly), 가치 있는 소중한, 이타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는 정서”를 의미한다(이원준·이희진, 2016: 80 ; Wood et al., 2008). 우드(Wood)는 감사를 자신과 타인을 위해 보다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바람직한 인간의 특성임을 강조하였다(이원준·이희진, 2016).

내적 자원(inner resources)은 전체성, 정체성 및 권한 부여감을 위해 노력하고 발견하는 과정으로(Howden, 1992), 위기 상황에서 강인함을 느끼고, 삶의 불확실성을 대처할 때 평온함이나 고요함을 유지하며, 삶의 지침을 얻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 평화로움을 느끼며, 능력감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난다(Howden, 1992). 선행연구자들은 내적 자원감을 영성의 핵심 구성소로 강조하고 있다(Howden, 1992 ; Westgate, 1996 ; 이경열 외 2003). 영성은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뿐만 아니라 상위존재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하며, 신체와 영혼, 마음을 통합하는 에너지,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는 것, 당면한 현실을 초월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오복자·강경아, 2000: 1146 ; Liening, 1978 ; Hiatt, 1986 ; Stroll, 1989). 알포트(Allport, 1950)는 내적 자원은 “인생을 이해하는 틀(framework)을 제공하여,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삶을 안정적으로 안내”한다고 하였다(이경열 외, 2003: 714). 영성 척도를 개발한 이경열 외(2003)는 내적 자원감을 영성 척도의 주요 하위척도로 선정하면서, “통제감,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수용, 회복능력, 강한 집중력, 일상생활의 여유” 등을 내적 자원감의 주요 지표(indicators)로 제시하였다(이경열 외, 2003: 715).

#### (2) 감사가 내적자원감에 미치는 효과

왓킨스 외(Watkins et al., 2003)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소재(internal locus) 및 외적소재(external locus)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람들은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외부의 도움이 작용했던 그 맥락과 상황에서 감사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잘 되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여한 측면 또한 잘 인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내·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감(competence)”을 갖게 된다(이원준·이희진, 2016: 80 ; Watkins et al., 2003: 437). 내외적 통제감 및 능력감은 내적 자원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측면에서(이경열 외, 2003), 내적 자원감 향상에도 감사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 2. 감사가 내적자원감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의 이중매개효과

개인의 감사성향이 심리적, 신체적,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노혜숙·신현숙 2008 ; 김유리·이희경 2012 ; 이승연·한미리 2016 ; 이원준·이희진, 2016 ; Emmons & McCullough, 2004 ; Watkins et al., 2003 ; McCullough et al., 2004 ; Bartlett & DeSteno, 2006 ; Wood et al., 2008 ; Emmons & Mishra, 2011)는 개인의 웰빙에 감사성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임을 시사해준다(이원준·이희진, 2016). 정신건강을 행복을 지닌 상태로 개념화 한 키이스(Keyes, 1998)는 정신 건강을 정서적 웰빙과 함께,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에 기초한 사회적 안녕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Keyes, 2002 ; 2003). 키이스는 “개인의 안녕감을 평가할 때,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기분적 상태에 한정되지 않고, 구성원이 지각하는 개인의 기능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사회의 유능함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하였다(임영진 외, 2012: 380 ; Keyes, 2002 ; 2003). 맥컬러 외(McCullough et al., 2002)는 감사가 친사회적 상호성(prosocial reciprocity)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이원준·이희진, 2016), 감사가 사회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개인의 감사성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정서적 웰빙과 사회적 웰빙을 구분하여 밝혀볼 필요가 있다.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감 및 사회적 안녕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면서, 개인의 감사성향이 어떤 형태의 웰빙(정서적 웰빙 Vs. 사회적 웰빙)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내·외적 통제감,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일상생활의 여유, 강한 집중력 등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지닌 내적 자원감(이경열 외, 2003: 715)은 감사성향이 강할수록 증가할 수 있고, 정서적 안녕,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공동체에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며,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을 갖는 사회적 안녕(임영진 외, 2012: 386 ; Keyes, 2002 ; 2003)에 의해서도 내적 자원감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해볼 수 있다. 감사(gratitude)가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감사, 정서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모두가 내적 자원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을 하면서, 감사가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로 인해 한층 더 증가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3.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자원보존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목적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다(이동명, 2008 ; Hobfoll, 1989). 모든 구성원들은 “가치 있는 무엇 즉, 자원(resource)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

고 있다(이동명, 2008: 216). 자원은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거나,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원은 물질(objects), 상황(condition), 에너지와 함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숙달감 등 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고(양영순, 2009), 자신에 대한 긍정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거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한다(Hobfoll & Lerman, 1999: 517). 이러한 긍정적인 개인특성은 유용한 내적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저항에 도움 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자원획득은 개인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원의 감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과 성취감 저하(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를 가져올 수 있다(이동명, 2008: 216). 자원보전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감(depression)은 자원획득에 실패했거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내·외적 통제감,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특성을 지닌 내적 자원감(이경열 외, 2003: 715)의 결여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영성(spirituality)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은 국내 연구(노은석, 2018)에서도 시사하고 있다. 영성의 핵심 구성소인 내적 자원감이 결여될 때,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고, 그 결과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자원감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4. 기독교 신앙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

사회정체성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한다(이원준·이희진, 2016: 81 ; Tajfel & Turner, 1979 ; Ashforth & Mael, 1989).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그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선택과 결정을 행하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기독교의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된 기독교인의 행동양상에는 비기독교인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이원준·이희진, 2016).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감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는 구절은 기독교에서 얼마나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시사해준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무교인에 비해서 감사성향이 높은 사실은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원준·이희진, 2016). 감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는 성숙한 신앙이 심리적 안녕 및 자존감 향상(전교식, 2002 ; 김성수·장성수, 2010), 우울 및 불안 감소(이유리, 2002 ; 김성수·장성수, 2010)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신앙이 성숙한 기독교인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방, 1997 ; 김성수·장성수, 2010: 35).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앞서 제시했던 연구가설들, 즉 감사가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그

리고 감사가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 그리고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등은 감사성향이 다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앞서 주요 연구가설로 제시했던 관련 요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병행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5. 연령(통제변수)

감사한다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다. 연령에 따른 성숙성의 차이를 인식할 때,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관련 요인들(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간의 직·간접효과 그리고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등에 연령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할 때, 독립변수(감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에 연령을 통제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요인들의 직·간접효과와 조절효과(moderating)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자료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직접효과, 간접효과, 조절효과)에 대한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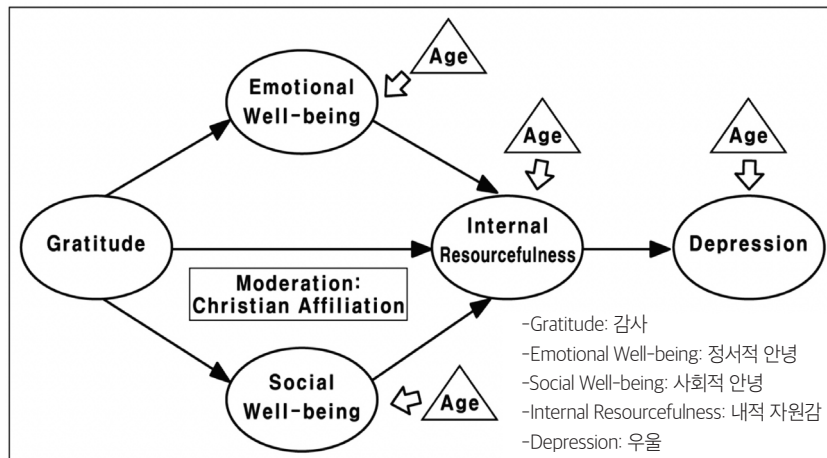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감사가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감사가 내적자원감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4) 감사가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감사와 내적 자원감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는 기독교신앙의 유무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 (5)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6)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는 기독교신앙의 유무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data)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다. 설문지를 작성하여 IRB 승인(2023년 4월 18일)을 받은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베이 업체(두잇세베이)에 가입된 유료패널 등록자들이다. 서베이 업체는 등록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링크를 보내 본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흥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약 2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들(624명)은 서울(199명), 6개 광역시(168명), 9개 도(257명)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이다. 남성이 359명(57.5%), 여성이 265명(42.5%)이다. 연령대를 보면, 20대(97명 15.5%), 30대(152명, 24.4%), 40대(242명, 38.8%), 50대(133명 21.3%)등 다양한 연령대(25세~59세)를 포함하고 있다.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388명) 학력자가 6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95명, 15.2%), 전문대(81명, 13%), 대학원 이상(60명, 9.6%) 순이다. 종교배경을 살펴보면 무교가 약 375명(60.1%), 기독교가 168명(26.9%)가 가장 많고, 불교(74명, 11.8%), 기타(4명), 유교(3명) 순이다.

##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 (1) 감사(Gratitude):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gratitude) 척도는 키이스(Keys, 2002; 2003)가 개발한 감사 척도 문항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척도 문항(6개)은 “나는 내 삶에서 감사할 것이 많다”, “만약 내가 감사하게 느끼는 것을 목록으로 적어보라고 하면, 그 목록의 길이는 상당히 길 것이다”, “나이가 들

어가면서, 내 삶의 역사의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더욱 더 감사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세상(사회)을 볼 때,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역 점수)”, “내가 누군가 혹은 어떤 일(사건)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역점수)” 등이다. 7점 척도(1=아주 동의하지 않는다 ~7=아주 동의한다)이고,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 성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로 측정한 해당척도의 신뢰도는 .826이다.

#### (2) 정서적 안녕(Emotional Well-being): 매개변수1

정서적 안녕 척도는 임영진 외(2012)가 개발한 정신적 웰빙(MMF-5F) 척도의 하위척도(정서적 안녕)를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3문항)은 “행복을 느꼈다”, “삶에 흥미를 느꼈다”, “만족감을 느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커트 척도(0=전혀 없음, 1=한달에 한번 혹은 두 번, 3=1주일에 한번, 4=거의 매일, 5=매일)로 평가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 수준이 더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로 측정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918이다.

#### (3)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 매개변수2

임영진 외(2012)가 개발한 정신적 웰빙(MMF-5F) 척도의 하위척도인 사회적 안녕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척도 문항(4 문항) 내용은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공동체(사회집단, 이웃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느꼈다”, “우리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 만하다고 느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커트 척도(0=전혀 없음, 1=한달에 한번 혹은 두 번, 3=1주일에 한번, 4=거의 매일, 5=매일)로 평가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감 수준이 더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로 측정한 해당척도의 신뢰도는 .847이다.

#### (4) 내적 자원감(Internal Resourcefulness: 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적 자원감 척도는 이경열 외(2003)가 개발한 영성 척도(spirituality scale)의 하위척도인 내적 자원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5개)은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다”, “내 안에는 무한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1=아주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고,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자원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로 측정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828이다.

**(5) 우울감(Depresssion):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감 척도는 박재숙(2011)이 구본용과 유재민(2003)이 개발한 위기평정척도에서 해당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척도 문항(4개) 내용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늘 마음이 슬퍼진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등이다. 5점 척도(아주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로 측정한 해당척도의 신뢰도는 .905이다.

**(6) 기독교 유무(Christian Affiliation): 조절변수**

관련 요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가 기독교 유무에 의해 어떻게 조절(moderating)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기독교 유무는 기독교인(168명)과 비기독교인(456명)을 구분하여 만든 이항변수(0=비기독교인, 1=기독교인)로 이다.

**(7) 연령(Age):통제변수**

연령이 관련 요인들의 직·간접효과 및 조절효과에 미칠 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령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대(20대=1, 30대=2, 40대=3, 50=4대)로 구분한 단문항 변수이다.

**(8) 주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주요 척도들(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합성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를 하단의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nstrument

	Gratitude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Depression
C. R	.842	.918	.846	.829	.903
A. V. E	.506	.789	.579	.503	.705

A.V.E 값은 0.5 이상(Fornell & Larcker, 1981), C.R 값은 0.7이상(Bagozzi & Yi, 1988)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척도들(5개)의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혹은 합성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9) 분석방법

관련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에 근거하여, AMOS 25와 Mplus 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rker-Lewis index)지수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기독교 유무(비기독교=0, 기독교=1)의 조절효과(modulating effect) 분석은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분석은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시 정상성(normality)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Schumacker & Lomax, 2004 ; 홍세희, 2009), 슈라우트와 볼거(Shrout & Bolger, 2002)의 방법에 근거하여,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bias)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변수들(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의 정규성(normality)검증을 위해 각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변수들(indicators)의 왜도값(-.588~.658)과 첨도값(-1.059~.236)을 파악하였다(Table 2).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은 모두 절대값 2미만이고,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은 7을 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 분포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Curran et al. 199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N=624)

Variables	Indicator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E	Kurtosis	S.E
Gratitude	E1	4.71	1.329	-.542	0.98	.236	.195
	E2	4.28	1.503	-.280	0.98	-.400	.195
	E3	4.63	1.358	-.479	0.98	.101	.195
	E4	4.39	1.391	-.374	0.98	-.269	.195
	RE5	4.32	1.56	-.097	0.98	-.770	.195
	RE6	3.81	1.36	.324	0.98	-.091	.195
7 point(1-7)	척도	4.36	1.038	-.216	-.098	.165	.195

Emotional Wellbeing	D1	3.49	1.271	-.201	0.98	-.201	.195
	D2	3.44	1.262	-.212	0.98	-.212	.195
	D3	3.43	1.288	-.125	0.98	-.125	.195
6 point(0-5)	척도	3.45	1.181	-.278	.098	-.479	.195
Social Wellbeing	D4	2.91	1.395	.310	0.98	-.921	.195
	D5	3.04	1.487	.158	0.98	-1.059	.195
	D6	2.93	1.413	.232	0.98	-.935	.195
	D7	2.94	1.377	.270	0.98	-.788	.195
6 point(0-5)	척도	2.96	1.175	.200	.098	-.799	.195
Internal Resourcefulness	B1	3.44	.840	-.588	0.98	.164	.195
	B2	3.38	.910	-.362	0.98	-.148	.195
	B3	3.38	.923	-.455	0.98	-.056	.195
	B4	3.40	.988	-.553	0.98	-.014	.195
	B5	3.33	1.001	-.245	0.98	-.323	.195
5 point(1-5)	척도	3.38	.719	-.597	.098	.444	.195
Depression	C15	2.46	1.082	.481	0.98	-.417	.195
	C16	2.58	1.082	.322	0.98	-.603	.195
	C17	2.52	1.140	.357	0.98	-.696	.195
	C18	2.31	1.207	.658	0.98	-.524	.195
5 point(1-5)	척도	2.47	.995	.444	.098	-.613	.195

## 2. 기독교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 간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비교

감사 척도의 평균값(4.64, 1-7점 척도)은 중간점수(4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점수(5 점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서적 안녕(Mean=3.67, 0-5점 척도)과 사회적 안녕((Mean=3.17, 0-5점)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느끼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s Vs. Non-Christians)  
Christian Group N=168 / Non-Christian Group N=456

	Variables				
	Gratitude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Depression
Christian Group Means(SD)	4.64(1.033)	3.67(1.174)	3.17(1.182)	3.41(.692)	2.35(.984)
Non Christian Group Means(SD)	4.25(1.021)	3.38(1.175)	2.88(1.163)	3.37(.729)	2.51(.997)
t-value	<b>-4.208</b>	<b>-2.789</b>	<b>-2.812</b>	-.626	1.811

### 3. 측정모형 분석

내적 자원감(Mean=3.41, 1-5점 척도)도 척도의 중간값(3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양호한 수준(4점 이상)에는 못 미친다. 우울감 감소(Mean=2.35, 1-5점 척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2점보다 높았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내적 자원감 척도값이 수학적으로 더 높고, 우울감 척도값이 더 낮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Table 3). 이러한 두 집단(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 간에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관련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할 때,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을 병행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5개 잠재 변인(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에 대한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모형 분석결과를 <Table 4>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 624)**

Variables	Indicators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SMC
Gratitude	E1	.809	1.400	.113	12.409	***	.655
	E2	.862	1.687	.133	12.709	***	.742
	E3	.846	1.496	.119	12.623	***	.715
	E4	.812	1.470	.118	12.425	***	.659
	RE5	.492	1.000	-	-	-	.242
	RE6	.161	.285	.076	3.741	***	.026
Emotional Well-being	D1	.884	1.000	-	-	-	.781
	D2	.895	1.006	.032	31.603	***	.801
	D3	.886	1.016	.033	31.040	***	.786
Social Well-being	D4	.784	1.056	.055	19.058	***	.614
	D5	.787	1.131	.059	19.143	***	.619
	D6	.721	.985	.056	17.491	***	.520
	D7	.751	1.000	-	-	-	.564
Internal Resourcefulness	B1	.632	1.000	-	-	-	.399
	B2	.708	1.215	.085	14.308	***	.501
	B3	.686	1.194	.085	13.980	***	.471
	B4	.801	1.491	.096	15.566	***	.641
	B5	.676	1.275	.092	13.814	***	.456
Depression	C15	.850	1.000	-	-	-	.722
	C16	.799	.940	.040	23.662	***	.638
	C17	.849	1.052	.041	25.918	***	.720
	C18	.860	1.129	.043	26.441	***	.740

\* $p < .05$ . \*\* $p < .01$ . \*\*\* $p < .001$ .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측정 변인들은 잠재 변인들(latent variables)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적합도( $\chi^2=896.451$ ,  $df=199$ ,  $p=.000$ ,  $CFI=.919$ ,  $TLI=.906$ ,  $RMSEA=.075$ )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 4. 모형 분석

전체 표본(6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의 적합도( $\chi^2=974.451$ ,  $df=220$ ,  $p=.000$ ,  $CFI=.912$ ,  $TLI=.899$ ,  $RMSEA=.074$ )는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하였던 6개의 직접경로들, 즉, 감사→정서적 안녕( $\beta=.699^{***}$ ), 감사→사회적 안녕( $\beta=.656^{***}$ ), 감사→내적 자원감( $\beta=.309^{***}$ ), 정서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318^{***}$ ), 사회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191^{**}$ ), 내적 자원감→우울감( $\beta=-.485^{***}$ )은 모두 유의하였다. 감사→(정서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226$ , Lo. .131, Hi. .323) 경로에서, 정서적 안녕은 감사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감사→(사회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133$ , Lo. .049, Hi. .231) 경로에서, 감사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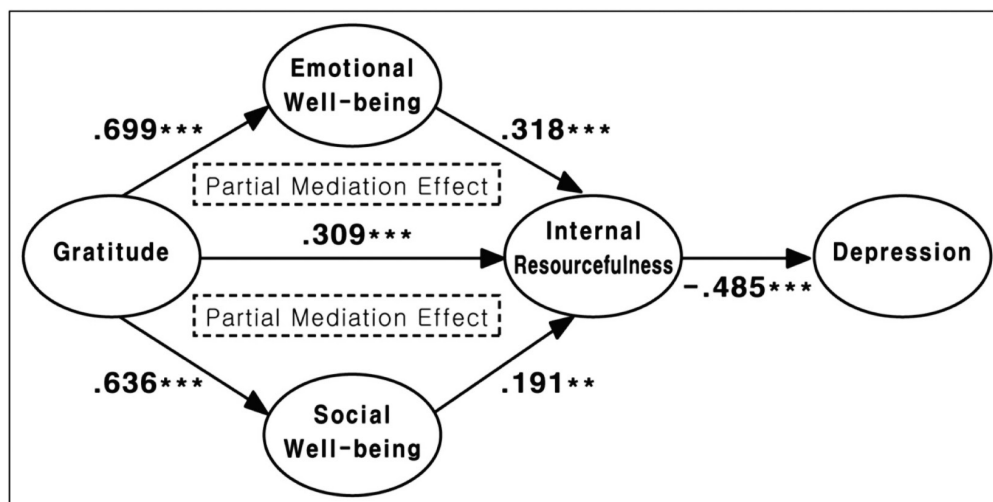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이러한 분석결과 <Table 5>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가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관련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Table 6 참조)가 필요하다.

**Table 5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Parameter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 (P-valu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beta$ )	Unstandardized Estimate(B)	S.E
Gratitude → Emotional Wellbeing	.699***	1.057***	.097
Gratitude → Social Wellbeing	.656***	.904***	.092
Gratitude → Internal Resourcefulness	.309***	.219***	.043
Emotion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318***	.149***	.035
Soci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191**	.098**	.036
Internal Resourcefulness → Depression	-.485***	-.842***	.086
In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beta$ )	Unstandardized Estimate(B)	
Gratitude → (Emotion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226	.112	
Gratitude → (Soci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133	.066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Gratitude → (Emotion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131	.323	
Gratitude → (Soci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049	.231	

$\chi^2=974.451$ ,  $df=220$ ,  $p=.000$ , CFI=.912, TLI=.899, RMSEA=.074

\* $p<.05$ . \*\* $p<.01$ . \*\*\* $p<.001$ .

## 5.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

### (1) 측정모형 분석의 필요성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가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기독교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설정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의 계수값( $\beta$ )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집단 분석은, 측정동일성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 검증(measurement invariance tes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잠재변인들(5개)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내용에 대해서, 두 집단(기독교인 집단, 비기독교인 집단)이 각각 동일하게 지각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측정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두 집단(기독교인, 비기독교인)간의 비교는 그 타당성(validity)을 갖지 못하여, 조절효과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기저모형( $\chi^2=1289.672$ ,  $df=440$ ,  $p=.000$ ,  $CFI=.902$ ,  $TLI=.887$ ,  $RMSEA=.056$ )과 측정모형( $\chi^2=1320.499$ ,  $df=457$ ,  $p=.000$ ,  $CFI=.900$ ,  $TLI=.889$ ,  $RMSEA=.055$ )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유도 차이( $\Delta df$ )가 17일 때 카이제곱차이 값( $\Delta \chi^2$ )이 30.827로, 임계치 27.587을 초과하였지만,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과 거의 차이가 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독교 집단과 비기독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3, Figure 4와 <Table 6>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 (3)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비기독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비기독교인들(375명)은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6개의 직접 경로들 중에서 사회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191^{**}$ )경로만 유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5개의 직접 경로들, 즉, 감사→정서적 안녕( $\beta=.678^{***}$ ), 감사→사회적 안녕( $\beta=.690^{***}$ ), 감사→내적 자원감( $\beta=.330^{***}$ ), 정서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331^{***}$ ), 내적 자원감→우울감( $\beta=-.468^{***}$ )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정서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216$ , Lo. .135, Hi. .311) 경로에서, 정서적 안녕은 감사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감사→(사회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1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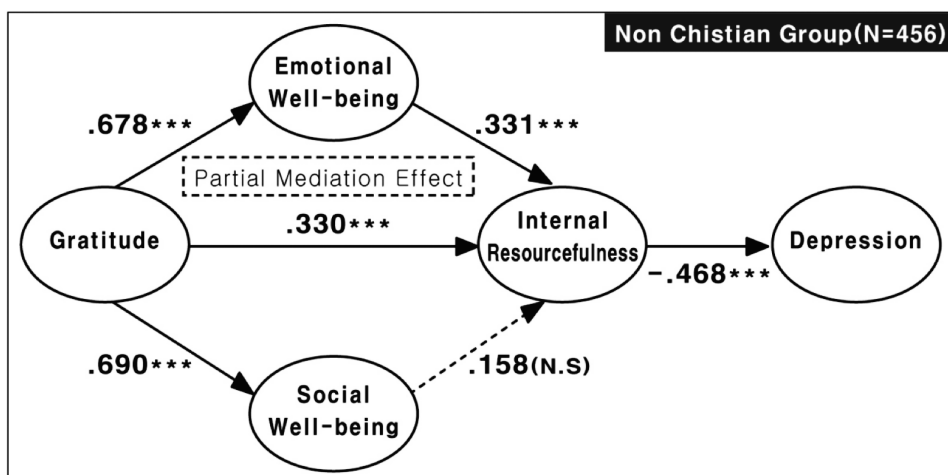


Figure 3.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Non Christian Group)

Lo. -.051, Hi. .225) 경로에서, 감사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독교 유무 조절효과를 실시하기 전의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Table 5)에서는 모든 직접 경로(6개)와 간접 경로(2개)가 모두 유의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조절효과 분석을 시행해야 할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기독교인들(168명)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응답자들에 대한 분석결과(Table 5) 뿐 만 아니라, 전술한 비기독교인에 대한 분석결과와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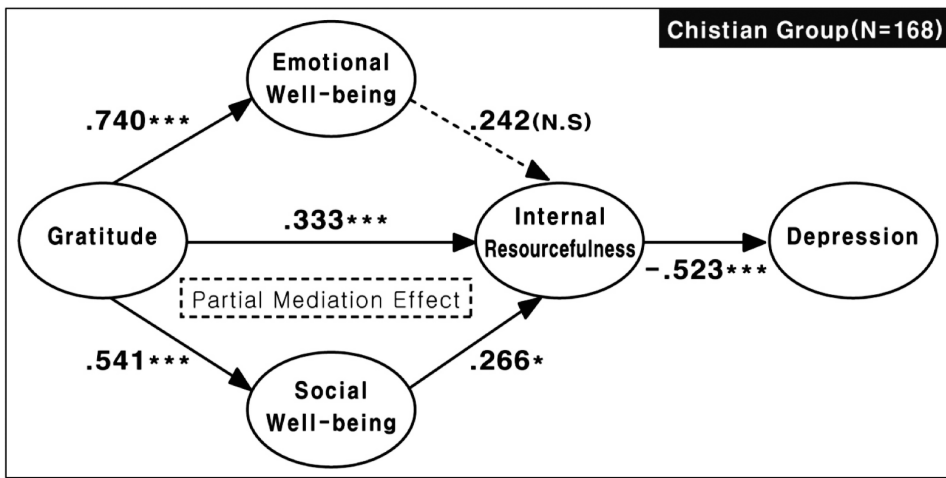


Figure 4.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Christian Group)

기독교인들은 6개의 직접 경로들 중에서, 정서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242$ ) 경로만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경로들, 즉, 감사→정서적 안녕( $\beta=.740^{***}$ ), 감사→사회적 안녕( $\beta=.541^{***}$ ), 감사→내적 자원감( $\beta=.333^{***}$ ), 사회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266^*$ ), 내적 자원감→우울감( $\beta=-.523^{***}$ )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사회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138$ , Lo. .052, Hi. .235) 경로에서, 감사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감사→(정서적 안녕)→내적 자원감( $\beta=.224$ , Lo. -.237, Hi. .324) 경로에서 정서적 안녕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적 안녕이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효과는 비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였지만, 기독교인 집단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안녕이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효과는 기독교인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비기독교인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의 경우, 감사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사회적 안녕이,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안녕이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로 인해 두 집단(기독교인 집단 Vs. 비기독교인 집단)간에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Table 6. The Result of Moderate Effect

Parameter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 (P-value)						
	Non Christian Group			Christian Group		
Direct Path	$\beta$	B.	S.E	$\beta$	B.	S.E
Gratitude → Emotional Wellbeing	.678***	1.049***	.105	.740***	1.154***	.135
Gratitude → Social Wellbeing	.690***	.966***	.102	.541***	.776***	.129
Gratitude → Internal Resourcefulness	.330***	.247***	.053	.333**	.231**	.082
Emotion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331***	.160***	.040	.242	.108	.073
Soci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158	.084	.046	.266*	.129*	.063
Internal Resourcefulness → Depression	-.468***	-.788***	.093	-.523***	-.951***	.155
Indirect Path	$\beta$	B.		$\beta$	B.	
Gratitude → (Emotion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216	.112		.224	.112	
Gratitude → (Soci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134	.069		.138	.069	
Confidence Interval	Low	Upper		Low	Upper	
Gratitude → (Emotion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135	.311		-.137	.324	
Gratitude → (Social Wellbeing) → Internal Resourcefulness	-.051	.225		.052	.235	
$\chi^2= 1320.499$ , $df=457$ , $p=.000$ , $CFI=.900$ , $TLI=.889$ , $RMSEA=.055$						

\* $p < .05$ . \*\* $p < .01$ . \*\*\* $p < .001$ .



## V. 결론 및 논의

자료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첫째, 응답자들의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우울감(척도의 평균값=2.47)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2점 미만)에는 못미쳤다(Table 2). 내적 자원감과 우울감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감사향이 더 높은 것은 선행연구결과(이원준·이희진, 2016)와 일치하였다.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 수준도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 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1)(Table 3).

둘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감사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 그리고 내적 자원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노혜숙·신현숙, 2008 ; 김유리·이희경, 2012; 이승연·한미리, 2016)와 부합하고 있다(연구문제 2)(Table 3).

셋째, 감사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내적 자원감은 우울감 감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기독교인( $\beta = -.523^{***}$ )뿐 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beta = -.468^{***}$ )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연구문제 5)(Table 3).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감사와 우울감 감소 간의 상관성을 보고한 이지은 외(2016: 1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비기독교인의 경우, 사회적 안녕이 아닌 정서적 안녕이, 감사가 내적 자원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기독교인의 경우는 정서적 안녕이 아닌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로 감사가 내적 자원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어 대조적이다(연구문제 3)(Table 3).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비기독교인의 경우, 내적 자원감 향상에 사회적 안녕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기독교인의 경우, 내적 자원감 향상에 정서적 안녕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Table 3).

다섯째, 감사가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향상 등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내적 자원감이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연구문제 4, 6). 그러나 정서적 안녕이 내

적 자원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안녕이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감사와 내적 자원감의 관계에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져,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연구문제 4)(Table 3).

전술한 주요 발견점을 종합해볼 때, 기독교인은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그리고 우울감 등을 감소시킬 수 내적 자원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이 있는 감사 수준이 비기독교인 보다 높은 것이 입증되어, 정신건강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감사의 순기능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가하여, 감사(gratitude)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감의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한층 더 증가시키는 중요한 매개요인(critical mediator)의 특성은, 그 대상이 기독교인지(예: 사회적 안녕) 혹은 비기독교인(예: 정서적 안녕)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2. 실천적 함의 및 제언

첫째, 연구결과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감사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감을 향상시키는데(기독교인,  $\beta=.333^{***}$ ; 비기독교인,  $\beta=.330^{***}$ ),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실천적 함의(practical implication)를 얻게 되었다. 감사 성향을 높이기 위한 감사일지 작성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소개한 이지은 외(2016)의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개인의 감사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실천 영역에서 방안 모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 성향이 높은 것은, 정신건강을 위한 기독교인의 강점(strengths)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감사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리 자체가 기독교인의 감사성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지지체계(support system)임이 틀림없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기여한 유익함 뿐 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인정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비기독교인 보다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들이 감사 성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 향상에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감사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의 계발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계발에 관련 실천현장(상담소,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뿐 만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목회자는 전문성을 가진 교인들(상담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과 팀워크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단일 교회가 가진 인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의 다른 교회

들과 연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고, 지역의 관련 실천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도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기능 수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우울감이 감사와 정서적 안녕(비기독교인 경우) 혹은 사회적 안녕(기독교인 경우)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내적 자원감(internal resourcefulness)에 의해 크게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영성의 주요 핵심 구성소인 내적 자원감(이경열 외, 2003)이 기독교인( $\beta = -.523^{***}$ )과 비기독교인( $\beta = -.468^{***}$ ) 모두에게 우울감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해준 본 연구결과는, 내적 자원감이 “통제감(locus of control),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수용, 강한 집중력, 일상생활의 여유”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고(이경열 외, 2003: 715), 심리적 안정과 평정감을 가지게 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Howden, 1992; Westgate, 1996),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내적 자원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실천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 감사성향을 강화시키는 실천개입은 내적 자원감 향상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내적 자원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사회적 안녕’을, 비기독교인은 정서적 안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천 개입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는 실증 자료를 근거로, 개입(intervention) 대상이 기독교인인지 혹은 비기독교인인지에 따라서, 차별성이 반영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정서적 안녕(기독교인, Mean=3.67 ; 비기독교인, Mean=3.38)과 사회적 안녕(기독교인, Mean=3.17 ; 비기독교인, Mean=2.88) 수준이 모두 높았다. 정서적 안녕감에 비해, 특히 사회적 안녕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Table 2).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기본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 정서적 안녕과 달리, 사회적 안녕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지각하는 개인의 기능과 능력, 사회생활에서의 유능함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임영진 외, 2012: 380)에 근거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안녕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에 기초하고 있다(Keyes, 2002, 2003).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특히 사회적 안녕 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은 현상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몇가지 추론을 해보자면 친교(affiliation)는 교회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교회 안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장년부, 셀모임 등 다양한 조직(집단)들이 구성되어 있고, 다른 종교집단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은 다른 교인들과 다양한 형태의 신앙과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교인들은 교회내 자신이 속한 집단(모임)의 회원(membership)으로 소속감을 갖는다.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봉사하며 기여(공헌)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사회적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리스

천들이 자주 쓰며 삶의 목표로 삼는 빛과 소금 또한 본인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성찰이 들어간 표현으로 사회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교회의 친교문화와 다양한 봉사활동, 성경의 교리 등이 교인들의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안녕감을 그만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내적 자원감이 정서적 안녕이 아닌 사회적 안녕에 의해서 크게 향상될 수 있고, 기독교인에 비해서 사회적 안녕 수준이 낮은 비기독교인의 경우, 내적 자원감은 사회적 안녕감이 아닌, 정서적 측면과 기분적 상태 따른 정서적 안녕에 의해 향상되는 현상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경우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인 내적 자원감을 향상시키는데 사회적 안녕감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녕감이 매우 낮은 기독교인의 경우 그만큼 더 내적 자원감이 크게 결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내 사회적 안녕 수준이 매우 낮은 교인들은 위험 집단(high risk group)으로 우선적인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안녕감이 크게 결여된 교인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없을 경우, 이들은 교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사회적 안녕 수준이 매우 낮은 교인들이 각종 친교 및 봉사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조직의 리더가 자신의 조직(집단)의 회원들의 사회적 안녕 수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각 조직(집단)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감사가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정서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의 매개효과를 밝힘에 있어서,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관련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가 ‘기독교 유무’에 의해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을 병행하지 않았다면,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우울감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내적 자원감 향상을 위한 차별성을 반영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진 작은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내용 및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내적 자원감에 영향을 미칠 수 심리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다양한 심리특성(예: 자기지각, 정서적 성숙, 자율성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이, 내적 자원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을 하는데 그쳤다. 후속연구에서는 내적 자원감을 포함한 삶의 의미와 목적, 초월성, 자각, 연결성 등을 모두 내포하는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이경열 외, 2003)들의 효과를 밝혀 확장성 있는 연구를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의 조절효과만을 분석을 하였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스트레스 대처 수준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시사한 선행연구(정진방, 1997 ; 김성수·장성수, 2010)를 고려할 때, 단순히 기독교 유무 뿐 만 아니라, 신앙정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함께 분석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여, 기독교인, 타 종교인, 무교인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구본용·유재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김성수·장성수 (2010). 종교정향 및 신앙성숙과 심리적 안녕감, 비행,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2(2), 22-49.
- 김유리·이희경 (2012). 감사정향이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학생생활연구**, 25, 19-35.
- 노은석 (2018). 기독교청소년의 영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감사정향의 조절효과 및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학과 선교**, 54, 138-165.
- 노혜숙·신현숙 (2008). 청소년의 감사정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박재숙. (2011). **학교위험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양영순 (2009). 남편의 은퇴준비도와 아내의 결혼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은퇴자 아내가 인지하는 자원보존감과 스트레스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7(12), 5-34.
- 오복자·강경아 (2000). 영성(Spirituality) 개념 분석. **대학간호학회지**, 30(5), 1145-1155.
- 이경열·김정희·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 이동명 (2008). 정서노동 및 사회적 지지가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학연구**, 32(2), 213-231.
- 이승연·한미리 (2016). 노인의 감사정향 및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53-73.
- 이원준·이희진 (2016).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후원 후 감사 증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4), 75-104.
- 이유리 (2002). **기독교사의 신앙성숙 수준과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지은·김정은·김미리혜 (2016). 감사일지 작성이 우울 성향이 있는 여대생의 우울, 주관적 웰빙, 낙관성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9-45.
-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 (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전교식 (2002). **기독교 신앙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진방 (1997). **성숙 신앙인과 기복신앙인의 스트레스와 갈등대처 양식: 기독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조명주·전원희 (2014). 한국간호대학생의 희망, 감사성향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568-578.
- 조한나·정영숙 (2011). 여성노인의 감사성향과 그 기능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62-188.
- 홍세희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S & M 리서치그룹.
- Allport, G. W. (195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NY: Macmillan.
-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Aspinwall, L. G. (1998). Rethinking the role of positive affect in self-regulation. *Motivation and Emotion*, 22, 1-32.
- Bartlett, M. Y. & DeSteno, D. (2006).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r: Helping when it costs you. *Psychological Science*, 17(4), 319-325.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rown, G. W. & Andrews, B. (1986).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Dynamics of stres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p. 257-282). Boston, MA: Springer U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 Emmons, R. A. & Mishra, A. (2011). Why gratitude enhances well-being: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In Donaldson, S. I., Csikszentmihalyi, M. & Nakamura, J. (Ed.). *Designing Positive Psychology: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pp. 248-26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Publications Sage.

- Hiatt, J. F. (1986). Spirituality, medicine, and healing. *Southern Medical Journal*, 79(6), 736-743.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
- Hobfoll, S. E. & Lerman, M. (1988). Personal relationship, personal attitudes, and stress resistanc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s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565-589.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1), 166b (University Microfilms No. AAG 9312917).
- Keyes, D.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D.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207-222.
- Keyes, C. L. M. (2003). Complete mental health: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 Keyes, C. L. M. & Haidt, J. (Ed.).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 293-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Liening, M. (1978). Spiritual needs of the psychiatric patient. in Dunlap, L. C. (Ed.). *Mental Health Concepts Applied to Nursing* (pp. 49-53). NY, John Wiley & Sons.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27.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719-727.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Psycholog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oll, R. I. (1979). Guidelines for spiritual assessment. *AJN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9(9), 1574-1577.
- Tajfel, H. & J. C.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Austin, W. G. & Worchel, S. (Ed.).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Trivers, R.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1),



35-57.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5), 431-451.
-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1), 26-35.
- Wood, A. M., Joseph, S. & Maltby, J. (2008). Gratitude uniquely predicts satisfaction with life: Incremental validity above the domains and facets of the five-factor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1), 49-54.

# 감사가 정서적·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Gratitude on Emotional, Social Well-being, Internal  
Resourcefulness,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Christianity

이 원 준 (창신대학교)

이 희 진 (한동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가 정서적·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 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파악하고, 기독교신앙의 유무가 관련 요인들의 직·간접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였고, 조사 응답자(624; 남성 359명, 여성 259명)는 서베이 업체의 패널 등록자들로 전국단위(서울, 5개 광역시, 9개도)에서 선정된 사람들이다.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 보다 감사성향이 더 높고,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 수준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가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을 향상시키고, 내적 자원감은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현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감사가 내적 자원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녕을 매개로,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안녕을 매개로 하여 한층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의 내적 자원감은 사회적 안녕에 의해 향상될 수 있고, 비기독교인은 정서적 안녕에 의해 향상되어 대조된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감 향상을 위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논의하였다.

주제어: 감사,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내적 자원감, 우울감, 기독교인

#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of Diaspora Huguenots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of the Huguenots, French Protestants who were persecuted during the Reformation and dispersed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y were refugees at the time, they were in fact high skilled watch makers, printers, metalworkers, textile workers, entrepreneurs, bankers, teachers, lawyers, doctors, and merchants. After the Edict of Nantes was abolished by the Edict of Fontainebleau of Louis XIV in 1685, more Huguenots dispersed Switzerland, South Africa, England, Ireland, the Netherlands,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nd especially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Then why did these Huguenots live with such a different worldview from the Catholics of the time and why did they dynamically change those countries with creative and innovative entrepreneurship?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first briefl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Huguenot diaspora, then examines how they became a channel of blessing in the places where they settled, and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lessons this history can provide for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Huguenots, Calvinism, entrepreneurship, work ethic, Industrial Revolution

\* 2025년 2월 11일 접수, 2월 28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 I. 서론

본 논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박해를 받아 전 세계로 흩어진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다. 이들은 당시에 비록 난민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장인, 섬유업자 및 전문적인 직업인들, 즉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의사, 상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국외로 도피한 것은 프랑스 편에서 볼 때 고급인력의 고갈(brain drain)이었다(Le Hir, 2020: 64). 가령 스위스의 제네바는 당시 인구가 만 명 정도였으나 깔뱅의 개혁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 위그노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는 두 배로 급증했고 깔뱅의 직업 소명론 및 개신교 노동윤리 등의 성경적 세계관은 제네바를 놀랍게 변혁시켰다(최용준, 2018: 323-351). 나아가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IV)가 1598년에 개신교도의 신앙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위해 선포한 낭트 칙령(L'édit de Nantes)이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의 폰텐블로 칙령(L'édit de Fontainebleau)에 따라 폐지된 이후 더 많은 위그노가 스위스뿐 아니라 남아공,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지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크게 이바지했다(Beaudreau, 2016)<sup>1</sup>

그렇다면 왜 이 위그노들은 당시 천주교도들과 다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왜 이들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역동적으로 넘쳐났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흩어져 어떻게 그 정착한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본 주제에 관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덜란드어로 된 문헌은 많이 있다(Bakker, 1985 ; Birnstiel & Bernat, 2001 ; Botha, 1919 ; Forest, 2021 ; Gresch, 2009 ; Griffin, 2018 ; Hornung, 2014 ; Lugan, 1996 ; Luu, 1997 ; Mckee & Vigne, 2013 ; Schilling, 1983 등). 국내에는 위그노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있으나(성원용 2021 ; 유경하, 2022 ; 조병수, 2018) 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이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어떻게 기업가정신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고찰한 후 이러한 역사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 결론을 맺겠다.

1) 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 II.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 1. 디아스포라 위그노

위그노의 망명은 1572년 8월 24일에 파리에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시작하여 10월까지 로마 가톨릭교회 추종자들이 개신교도들을 학살(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한 사건으로 촉발했다. 더이상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 어렵게 되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인구 1,800만 명 중 개신교 인구는 11%인 200만 정도였다. 그중에서 약 100만 명의 위그노가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독일로 간 위그노는 베를린에서 엘리트 계층이 되었고 제조업과 기계 산업을 육성하였다. 네덜란드로 간 위그노는 무역업을 일으켰다. 영국으로 간 위그노는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스위스로 간 위그노는 정밀시계산업과 금융업과 사회봉사 기관을 세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위그노는 최상급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다. 미국으로 간 위그노는 예술가와 엔지니어 등 지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지도층이 되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를 포함한 8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위그노 후손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위그노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나라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역사의 전환을 이룬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들은 칼뱅의 후예들로서 어느 곳에서나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 검소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이다(성원용, 2021). 나아가 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발전시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새롭게 뿌리내린 지역에서 경제, 산업 및 문화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 2.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도착한 최초의 위그노는 네덜란드 총독 얀 판 리벡(Jan van Riebeeck)의 아내이자 왈롱 교회 목사의 딸인 마리아 드 라 켈러리(Maria de la Quellerie)로 1652년 4월 6일에 도착하여 남편과 함께 오늘날의 케이프타운(Cape Town)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10년 후 바타비아(Batavia)로 떠났다. 일부 위그노는 1671년 초 남아공의 희망봉<sup>3</sup>에 정착했다. 그 후 네덜란드에서 희망봉에

2) 바타비아는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의 수도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당한다.

3) 희망봉(Cape of Good Hope, 아프리카어: Kaap die Goeie Hoop, 네덜란드어: Kaap de Goede Hoop)은 남아공의 웨스턴 케이프주 남서안에 있는 곳으로 케이프타운 남쪽 48km에 있다.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sup>4</sup> 기지로 첫 번째 위그노 집단이 1687년 12월 31일에 출항했다(Botha, 1919: 7). 케이프에 정착한 위그노교도 중 가장 많은 수는 1688년과 1691년 사이에 178가족이 4척의 배를 타고 도착했으며, 그 후 1700년까지 도착한 사람도 꽤 많았으며 그 이후로는 수가 줄었다(Botha, 1919: 10). 이 정착민 중 다수는 나중에 프란쉬후크(Franschhoek: 프랑스 코너)라고 불리는 지역의 땅을 받았는데, 이 지역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부 케이프주에 있다. 이곳에는 위그노가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대형 기념비가 1948년 4월 7일 이곳에 제막되었고 위그노 기념관도 그곳에 세워져 1957년에 개관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공식 정책은 위그노와 네덜란드 공동체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위그노 공동체와 함께 도착한 폴 루(Paul Roux) 목사가 1724년에 사망하자 네덜란드 행정부는 특별히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른 프랑스 성직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허용했다(Walker, 1968). 하지만 이들도 동화되면서 3세대 이내에 위그노는 대부분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채택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부 케이프주의 많은 농장은 여전히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 아프리칸스<sup>5</sup>를 사용하지만, 위그노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프랑스 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남아공의 백인들을 지칭하는 아프리카너들(Afrikaners)의 20%는 du Plessis, de Villiers, du Toit, Theron, le Clos, Joubert, Malan, Fouché, Naudé, Terreblanche, Roux, Le Roux, Olivier, Marais 등과 같은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Le Clercq가 de Klerk로, Durand는 du Randt로, Pinard는 Pienaar, Villon은 Viljoen, Rétif는 Retief, Rousseau는 Rossouw로, Taillard는 Taljaard로 등으로 변경되었다(Lugan, 1996 ; Watkinson, 1875: 274).

초기에 정착한 위그노들은 이곳의 지형이 그들 대부분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 세벤느(Cévennes) 지역과 유사하여 이 지역에 정착한 후 비교적 신속히 적응하면서 그들이 가진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였다. 당시 이곳은 네덜란드동인도회사 선박이 바타비아로 향하는 항로에서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였으므로 동인도 회사는 위그노들을 남아공으로 초청했고 그들에게 선박에 공급하기 위해 농업과 포도 재배 산업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그곳에 정착한 위그노 일부는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 출신으로 이미 거기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브랜드 증류업자였으므로 이곳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했다(Fourie, & Von Fintel, 2014). 처음 3년간 땅을 개간한 후, 수확을 시작하여 18세기가 되어 대부분의 위그노 농부들은 부자가 되었으며 300년 후, 남아공은 세계 7위의 포도주 생산국이 되었다. 남아공 포도주의 90%가 이

4) 공식 명칭은 연합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로 네덜란드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해 1602년에 세운 다국적 기업이며, 최초의 주식회사이다.

5) 아프리칸스어(Afrikaans)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로 16-17세기에 네덜란드 농민 출신 이주자들의 후손이 써오던 네덜란드어가 독자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콘스탄치아(Constantia), 파알(Paarl), 스텔렌보스(Stellenbosch) 및 보르세스터(Worcester)는 위그노들에 의해 세계적인 수준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스텔렌보스에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 이민자들과 함께 남아공 최초의 대학인 스텔렌보스 대학교도 설립했다. 이처럼 남아공으로 이주한 위그노들은 전체 위그노 디아스포라 20만 명에 비하면 매우 소수였지만 대부분 프랑스의 자본가와 귀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조국인 남아공의 건국과 발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재도 양성했다. 이것은 당시 남아공으로 온 네덜란드 및 독일계 이민자들이 비교적 하류층 농민들이었고 대부분 실업자였던 사실과 대조가 된다<sup>6</sup>. 프란쉬후크에 있는 위그노 기념관은 이러한 유산을 잘 보여주며 정치, 금융계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에서도 프랑스 성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령 남아공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를 석방한 후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하자 부통령으로 출마하여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 분리 및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화해를 끌어내어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드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도 위그노 출신이었고 1995년에 남아공에서 개최된,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 주장의 이름도 프랑수아 피나르(Jacobus Francois Pienaar)였다.<sup>7</sup>

## 2) 미국과 캐나다

많은 위그노들이 16세기에 브라질, 플로리다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탐험에 참여했다. 그것은 왕권에 의해 추진되었고 콜리니 제독에 의해 시작된 남극 프랑스를 건설하려는 꿈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스페인과의 경쟁에 밀려 오래가지 못했다. 1562년 장 리보(Jean Ribault)가 플로리다와 현재의 미국 남동부를 탐험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파리스(Parris) 섬에 샤를포트(Charlesfort) 전초기지를 세웠으나 프랑스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 귀환할 수 없어졌고 이 기지는 버려졌다. 1564년 리보의 전 부관 르네 드 로도니에르(René G. de Laudonnière)가 두 번째로 플로리다 잭슨빌(Jacksonville)에 포트 캐롤라인(Fort Caroline)을 건설했지만, 국내 전쟁으로 보급이 막혔고 1565년에 스페인이 군대를 파견하여 프랑스군을 격파하였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Mayflower)호가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는 소수의 위그노들도 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금지로 뉴프랑스<sup>8</sup>에 정착하지 못한 제시 드 포레스트(Jessé

6) Tristan d'Albis, museeprotestant.org/en/notice/the-huguenots-in-south-africa/?parc=31903

7) 이것을 통해 만델라의 화해 정신과 남아공의 통합을 조명한 영화가 'Invictus'이다.

8) 누벨프랑스(프랑스어: Nouvelle-France, 영어: New France)는 북아메리카에 있던 프랑스의 식민지이다. 1534년 자크 카르띠에(Jacques Cartier)가 세인트로렌스강을 탐험하기 시작한 이래, 1763년 프랑스가 누벨프랑스를 스페인과 대영제국에 할양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1712년의 전성기에 영토는 뉴펀들랜드에서 로키산맥까지 그리고 허드슨만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렀다.



de Forest)가 이끄는 위그노들은 그 대신 1624년에 네덜란드 식민지인 뉴네덜란드<sup>9</sup>와 노바스코샤(Nova Scotia)<sup>10</sup>를 포함한 영국 식민지에 정착했다. 뉴암스테르담의 여러 가족은 종종 이전 세기에 네덜란드에 난민으로 이주했던 위그노 출신이었다. 1628년에 이들은 지금의 뉴욕인 뉴암스테르담에 프랑스 교회(L'Église française à la Nouvelle-Amsterdam)를 설립했는데 지금도 성령교회(L'Eglise du Saint-Esprit)로 있으며, 현재 성공회 공동체의 일부로 전 세계 프랑스어권 뉴욕커들을 환영한다. 뉴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위그노들은 롱아일랜드의 맨해튼 바로 건너편에 영구 정착지를 받았고, 뉴타운 크릭(Newtown Creek) 끝에 있는 항구를 선택했으며, 당시 부쉬윅(Bushwick)으로 알려진 브루클린(Brooklyn)에 사는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다. 1662년 초에 라로셴(La Rochelle)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청원서를 보내 그곳에 정착하여 영국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져 150가구가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그노 이민자들은 또한 뉴욕에서 북쪽으로 약 21마일 떨어진 뉴로셴(New Rochelle)과 더 북쪽의 뉴팔츠(New Paltz)에도 정착했다. 롱아일랜드 사운드 북쪽 해안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에 있는 뉴로셴은 뉴욕에서 위그노의 주요 거주지였다. 그들은 종교적 박해로 영국으로 간 후 낭트 칙령이 폐지되기 4년 전에 “보페 포인트(Bauffet's Point)”라고 불리는 다븐포트넥(Davenport's Neck)의 해안 반도에 상륙했다. 그들은 제이콥 라이슬러(Jacob Leisler)의 도움을 받아 펠럼 매너의 군주(Lord of Pelham Manor)인 존 펠(John Pell)로부터 6,100에이커 규모의 땅을 매입한 후 프랑스에서 그들의 거점이었던 라로셴의 이름을 따서 뉴로셴(New Rochelle)이라고 명명했다. 이곳에서 위그노들은 학교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여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뉴로셴은 교육과 예의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유지했다. 뉴팔츠의 “위그노 거리 역사 지구”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소수의 위그노교도는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남쪽 해안에도 정착했는데, 현재의 위그노 동네는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패뉴일 홀(Faneuil Hall)”은 라로셴에서 온 패뉴일 가족이 공공 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에 기증했다.<sup>11</sup>

위그노 난민들은 1725년 펜실베이니아 동부의 델라웨어강 계곡과 뉴저지 헌터돈 카운티(Hunterdon County)에도 정착했다. 뉴저지의 프렌치 타운은 초기 정착민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Calvin, 1945: 47-53, 57-71). 영국이 뉴프랑스를 정복한 후, 캐나다의 영국 당국은 프랑스어를 사용

9) 뉴네덜란드(네덜란드어: Nieuw-Nederland)는 1600년대 초반 아메리카의 네덜란드 식민지였다. 지금의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주들의 지역을 포함하였다.

10) 노바스코샤주(영어: Nova Scotia)는 “새 스코틀랜드”라는 의미로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이며, 주도는 핼리팩스이다. 스코틀랜드 문화가 강한 주로, 스코틀랜드계 주민이 29.3%를 차지한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앤의 고향이 바로 이곳 노바스코샤이다.

11) museeprotestant.org/en/notice/the-huguenot-refuge-in-america/?parc=31903



하는 개신교 교회를 이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 위그노 이민을 장려했다. 그 결과 소수의 위그노가 이주했지만, 대부분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바꾸었으며 오늘날 퀘벡에서는 개신교도가 여전히 소수자이다.<sup>12</sup>

1700년에도 수백 명의 위그노교도가 영국에서 버지니아 식민지로 이주했는데, 영국의 윌리엄 3세(William III)가 그들에게 로어 노퍽 카운티(Lower Norfolk County)의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식민지 당국은 대신 제임스 강 폭포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버려진 모나칸 마을(Monacan village)인 마나킨 타운(Manakin Town, 현재 구칠랜드 카운티(Goochland County)의 땅을 제공했다. 일부 정착민은 현재의 체스터필드 카운티(Chesterfield County)에 상륙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프랑스인 후손들은 서쪽의 피드몬트(Piedmont)로 이주했고, 애팔래치아 산맥을 건너 켄터키, 테네시, 미주리 및 기타 주가 된 서부로 이주했다.

많은 위그노교도는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Charleston) 지역에도 정착했다. 1685년 프랑스 폰스(Pons) 타운 출신의 엘리 프리올로(Elie Prioleau) 목사가 그곳에 정착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는 거기서 북미 최초의 위그노 교회 목사가 되었다. 낭트 칙령이 폐지된 후, 여러 위그노 난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했는데 영국 왕실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약 50가구가 정착하여 포도나무, 뽕나무, 올리브나무를 경작하여 모범 농장을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나아가 그들은 부동산 사업 및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변형했으며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딥 사우스와 텍사스(Deep South and Texas)로 이주하여 새로운 농장을 개발했다.

이들은 특히 식민지 후기와 연방 초기에 기업가와 장인으로서 미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가령, 저명한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라부아지에(Antoine-Laurent de Lavoisier)의 학생이었던 듀폰(E. I. du Pont)은 1802년에 엘루테리아 화약 공장(Eleutherian gunpowder mills)을 세웠다. 이 회사는 나중에 듀폰(DuPont)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듀폰은 미국 군대에 가장 큰 화약 공급자였고 남북 전쟁 시기에 북군이 사용한 화약의 40%를 공급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대책, 그리고 고품질을 무기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얻어, 이윽고 20세기에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나 무연 화약 등을 제조하게 되었다. 제1, 2차 세계 대전에서는 화약이나 폭탄을 공급한 것 외에 맨해튼 계획에도 참여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등 미국의 전쟁을 지원했다. 나아가 듀폰 가에서는 해군 군인 새뮤얼 듀폰 등을 배출했고 또한 초창기 자동차 산업에 주목해, 1914년에는 피에르 듀폰이 1908년에 창업한 GM사에 출자했으며, 후에 그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지휘

12) [www.thecanadianencyclopedia.ca](http://www.thecanadianencyclopedia.ca)

와 듀폰 사의 지원 아래, GM 사는 미국 1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다. 기타 유명한 투자자요, 조종사이며, 영화감독인 동시에 자선가였던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도 위그노 출신으로 존 가노(John Gano) 목사의 후손이었고 은세공업자로 유명한 폴 리비어(Paul Revere)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합 규약에 서명한 헨리 로렌스(Henry Laurens)와 같이 위그노 후손으로 미국의 발전에 공헌했고 기타 존 제이(John Jay), 헨리 로렌스, 엘리야스 부디노(Elias Boudinot) 같은 정치가들도 미국 혁명에 크게 공헌했다.

### 3) 네덜란드

네덜란드로 간 일부 위그노들은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의 초기 몇 년 동안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스페인에 맞서 싸웠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더욱 빠르게 위그노 망명자들의 목적지가 되었고 일부 네덜란드 귀족은 위그노 후손이다. 파리에서 살해된 위그노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Gaspard de Coligny)의 딸인 루이즈 드 콜리니(Louise de Coligny)는 네덜란드 독립운동 지도자인 침묵의 윌리엄(William the Silent)과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델프트(Delft)의 프린센호프(Prinsenhof)에 있는 그들의 궁정 교회는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위그노와 네덜란드 공화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부인 오란여 나사우 가문 간의 유대는 네덜란드 독립전쟁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나아가 남아공과 북미의 뉴네덜란드 같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식민지에 위그노가 일찍 정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영국 국왕이 된 윌리엄 3세는 1672년 프랑스가 네덜란드 공화국을 공격하자 루이 14세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떠올랐다. 그는 프랑스에 반대하는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했고 그 결과 많은 위그노들은 부유하고 칼뱅주의가 지배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을 가장 매력적인 망명지로 여겼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이미 왈롱 교회(Waalse kerk)라고 부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칼뱅주의 교회가 있었기에 1685년 낭트 칙령이 폐지된 후, 네덜란드 공화국은 가장 많은 위그노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약 75,000-100,000명이었다. 그들 중 목사가 200명 있었고 대부분은 프랑스 북부와 서플랑드르에서 왔으며 남부 세벤느 지방에서도 왔다.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 전체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으므로 이는 엄청난 유입이었다. 1705년에 암스테르담과 서프리지아 지역은 위그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했고 1715년에는 네덜란드 공화국 전체가 그렇게 했다.

위그노가 네덜란드를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16세기 말에는 프랑스 칼뱅주의자와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이에 많은 문화적 연관성이 있었다. 1575년 레이던 대학이 설립될 때 위그노 출신인 프랑수아 뒤 중(François du Jon, 1545-1602)이 신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는 개혁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와 그의 팽창주의 정책

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되었고, 정부의 중앙 집권주의를 거부했다. 나아가 처음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나중에는 모든 대도시의 다른 지방 및 지방 당국에서 매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주도했고 위그노 난민에게 세금 면제, 부르주아의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명확한 할당, 다양한 길드에 대한 자유롭고 비공식적인 접근, 수단이 없는 장인을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많은 권리와 특권을 약속했다. 인구 확장과 경제 개발이 연계되면서 난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 간의 경쟁이 발전했다. 경제적 동기는 자연스럽게 존재했으며, 프랑스와의 악화된 정치 및 상업 관계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콜베르가 프랑스에서 외국 제품에 대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네덜란드 상인들은 보호 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따라서 프랑스 제품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이 창출되어야 했다. 게다가 인구 증가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마침내 가장 부유한 난민들이 자본을 이전할 수 있었다. 가령 1687년에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부유한 위그노 상인들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고, 자본의 흐름은 금융 시장 활동을 자극했다. 섬유 산업은 최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위그노 장인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여러 도시에서 양모, 비단 및 천 작업장이 설립되거나 현대화되어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다. 유리 산업은 창문과 거울 생산을 전문으로 했고 사치품 무역은 특히 부채, 보석, 시계와 모자 부티크가 번성하면서 발전했다. 나아가 네덜란드는 “문학 공화국”의 중심지가 되면서 모든 문서에 프랑스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위그노 난민 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왈롱 교회 목사가 웅변과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유명했다(Labrousse, 1961).

#### 4) 영국

영국은 16세기 중반부터 위그노를 후원하고 보호하여 켄트(Kent)는 1548년경에 영국 최초로 위그노 회중을 수용했다(Cross, 1898: 3). 어린 나이에 즉위한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47-1553년 재위)는 그의 삼촌인 서머셋 공작 에드워드 세이모어(Edward Seymour Duke of Somerset)와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였던 토마스 크레머(Thomas Cramer)의 격려에 힘입어 위그노 난민들에게 보호를 허락했다. 1550년에 그는 런던에 있는 외국인 교회를 영국 국교회와 동등하게 인정했으며 마틴 부서(Martin Bucer, 1491-1551)와 같은 저명한 종교개혁자도 초청했다. 메리 1세(1553-1558)의 통치 기간에는 그들이 추방되었지만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58-1603)의 즉위 이후 그들은 다시 1559년에 런던으로, 1561년에는 켄트로 돌아왔다(Smiles, 1867: 104). 그녀는 특히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의 알바(Alva) 공의 박해를 피해 온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이 난민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롱인과 함께 1561년 캔터베리에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 주변 지역에 정착했고, 그 후 노리치(Norwich), 사우샘프턴(Southampton) 그리고 런던에 정착했다. 그 후에 온 위그노 난민은 1565년 콜체스터(Colchester)에 정착했다(Trim, 1999:

189-199). 1560년에서 1570년 사이에 이 피난민의 수는 약 6,000-7,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들은 장인으로 무역, 운송, 식량 산업에 종사했다. 영국이 루이 13세에 대항하여 위그노를 지원하자 소규모의 영국-프랑스 전쟁(1627-1629)도 있었다(Howat, 1974: 156). 런던은 1700년경에 많은 위그노가 영국과 그 식민지로 이주하는 데 자금도 지원하여 약 40,000-50,000명이 영국에 정착했으며, 대부분은 남부 지역의 해변 마을에 정착했고, 가장 많은 사람이 런던에 모여 당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했다(Sundstrom, 1976: 219-235). 이들 중에는 많은 숙련된 장인과 기업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들은 새로 정착한 곳의 산업혁명과 경제적 현대화를 촉진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보이는 편애에 대한 지역 장인들의 불평을 무시했다(Schilling, 1983). 위그노 이민자들은 영어 사용, 영국 국교회 가입, 통혼, 사업적 성공 측면에서 잘 동화되었으며 실크 산업을 일으켰다(Scouloudi, 1987). 또한, 많은 위그노가 사립 가정교사, 교사, 여행 가정교사, 승마 학교 주인이 되었고 상류층에 고용되었다(Green, 2018: 389-409).

1708년에 외국 개신교도 귀화법이 통과되기 전후로 약 50,000명의 개신교 왈롱인과 프랑스 위그노가 영국으로 도피했고, 아일랜드와 다른 지역으로도 이주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단일 민족 공동체가 영국으로 이주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 중 하나였다(The Economist, 2008). 켄트 해안에 도착한 난민 중 많은 사람이 당시 이 지역의 칼뱅주의 중심지였던 캔터베리로 몰려들었다. 많은 왈롱족과 위그노 가족이 그곳에서 망명을 허가받았으며 에드워드 6세는 캔터베리 대성당의 서쪽 지하 납골당 전체를 예배를 위해 허락했다. 이들은 터너게인 레인(Turnagain Lane)의 주택 블록 위층에서 직공으로 일했다. 다른 난민들은 원주민과는 달리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분리는 난민들이 도시에서 처음 받아들여지는 조건이었다.

런던의 프랑스 개신교회는 1550년 왕립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소호 광장(Soho Square)에 있다(Eglise protestante Londres.org). 위그노 난민들은 런던의 쇼디치(Shoreditch)로 몰려들어 동런던의 스피탈필즈(Spitalfields)와 그 주변에 주요 직조 산업을 일으켰다(Stepney, 1998: 91-95). 원즈워스(Wandsworth)에서 그들의 원에 기술은 배터시(Battersea) 시장 정원에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 투르(Tours)에서 온 위그노 난민 중 일부는 왈론 직조공들이 이전에 정착했던 노리치로 이사했다. 프랑스인들은 기존 이민자에 더해져서 당시 도시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일부 위그노들은 당시 영국 레이스 산업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던 베드퍼드셔(Bedfordshire)에 정착했다. 로렌(Lorraine) 지역에서 온 위그노들은 오늘날의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에 있는 스토어브리지(Stourbridge) 주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유리 제조 전통을 이어갈 원자재와 연료를 찾아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 산업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Ellis, 2002).

낭트 칙령 이후 난민의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라로셴(La Rochelle)에서 심한 박해를 받은 후 다

시 증가했다. 1680년대에도 약 8,000-10,000명의 위그노가 영국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중 절반은 런던에, 나머지 절반은 동부에 있었다. 1685년 남트 칙령의 폐지 이후에는 4-5만 명의 위그노 교도가 영국으로 왔는데 이는 영국 인구의 1%를 차지했다. 이들은 초창기 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보살핌을 받았으며 주로 런던에 정착했는데, 1700년에는 최대 14개의 프랑스 교회가 있었다. 이들은 개신교 노동윤리의식을 가지고 상인, 제조업체, 장인으로서 실크, 보석, 잡화, 종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건축가, 화가, 조각가는 궁전과 정원을 장식하는 일을 했다.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1 재임)는 위그노의 정착과 귀화를 촉진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자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의 동생 제임스 2세(James II, 1685-1688 재임)는 확고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프랑스 난민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처남인 윌리엄 3세가 영국을 침략하고 스튜어트(Stuart) 왕조를 종식한 후에 개신교 신앙이 수호되었고, 위그노 난민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 1709년 앤(Ann) 여왕은 영국에 정착한 모든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위그노 상인들은 많은 자본을 영국으로 가져와 무역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나아가 부유한 위그노 상인과 기업가들은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초대 총재인 존 후블론 경(Sir John Hublon)도 위그노 출신이었다. 오늘날 런던 주민 4명 중 1명은 위그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데, 위그노는 영국의 남동부 상업 중심지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개신교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당시 위그노의 곤경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을 느낀 동시에 경제적 번영의 원천으로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꼈기에 그들을 매우 환영했다. 당시 위그노들은 특히 섬유 산업, 직조, 고품질 시계 제작, 검안사 등과 같은 무역에서 매우 숙련된 장인과 기술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역량은 분명히 기술 지식과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확산에 도움이 되었는데, 둘 다 장기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전 세기에는 고도로 숙련된 영국 장인들이 더 높은 급여를 찾아 프랑스로 이주했는데 위그노는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영국으로 되돌려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영국의 섬유 산업과 이후 산업혁명의 발전에 이바지했다(Beaudreau, 2016). 또한, 위그노는 특히 셰필드(Sheffield)에서 철강 산업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1689년에 언론의 자유가 도입되면서 위그노교도는 문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여러 작품을 출판했는데 그중 주 3회 발행되고 위그노 디아스포라를 연결한 집배원(Post-man)과 젠틀맨 잡지(Gentleman's magazines)도 있다. 또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가장 유명한 위그노 교도였다.

##### 5) 아일랜드

남트 칙령이 철회된 후, 많은 위그노들이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에 아일랜드에 정착했으며,



아일랜드 의회도 이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장려했다(Hylton, 2005: 194). 위그노 연대는 아일랜드의 윌리엄 전쟁에서 오렌지의 윌리엄(William of Orange)을 위해 싸웠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 보조금과 작위를 받았으며, 많은 위그노들이 더블린(Dubline)에 정착했다. 기타 중요한 위그노 정착지는 코크(Cork), 포타링턴(Portarlington), 리스번(Lisburn), 워터포드(Waterford) 그리고 요할(Youghal)이었다. 포타링턴의 프랑스 교회는 16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위그노 공동체를 위해 지어졌고 당시 그들은 마을 사람 대부분을 구성했다.<sup>13</sup> 캐번(Cavan) 카운티의 킬레산드라(Killeshandra)를 포함한 소규모 정착지는 아마 재배 확대와 아일랜드 린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했다. 많은 위그노들이 17세기와 18세기에는 더블린, 코크, 요할, 워터포드에서 그 지역에서 지도력과 높은 책임의식을 인정받아 시장을 역임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름과 주요 마을과 도시의 일부 지역은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위그노 후손 중 한 명은 손 레마스(Seán Lemass, 1899-1971)로 1959년부터 1966년까지 총리로 재직했다.

#### 6)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역사적 동맹인 올드 동맹(Auld Alliance)의 선례에 따라 위그노는 대부분 환영을 받았고 1700년경부터 이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았다(Chater, 2012). 위그노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다른 지역처럼 스코틀랜드에 상당한 수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스코틀랜드 문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아놀드 플레밍(John Arnold Fleming)은 1953년 스코틀랜드에 미친 위그노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했으며(Fleming, 1953), 사회학자 에이브러햄 라벤더(Abraham Lavender)는 위그노가 칼뱅주의 관습을 고수하는 것이 스코틀랜드 사람들과의 호환성을 촉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했다(Lavender, 1989). 이들은 칼뱅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John Knox)와 함께 성경에 기초한 청지기적 기업가정신을 실천하여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스코틀랜드의 발전에 다양하게 이바지했다.

#### 7) 스위스

스위스로 간 위그노는 약 2만 명으로 추산한다. 스위스 연방은 당시 연방 의회 지배를 받는 13개 주, 동맹국, 종속국으로 구성되었으며 베른(Bern)과 취리히(Zürich)주가 가장 중요했다. 그 당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국가가 두 블록으로 나뉘었으며 개신교 스위스는 제네바(Geneva) 공화국, 베른이 지배하는 복음주의 주 그리고 뇌샬텔(Neuchâtel) 주로 구성되었다. 위그노 난민의 도착은 초창기에 종교 간 긴장을 악화시켰으며, 국가의 중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취약한 경제 상황도 악

13) [www.grantonline.com/grant-family-individuals/blong-george-1790/portarlington/portarlington.htm](http://www.grantonline.com/grant-family-individuals/blong-george-1790/portarlington/portarlington.htm)

화시켰다. 부랑자의 수가 증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난민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환대는 그들이 주로 독일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첫 번째 난민은 1540년에서 1590년 사이에 주로 제네바로 왔고, 두 번째 난민은, 1685년 낭트 칙령 폐지 전후에 주로 도팽(Dauphin), 세벤스 그리고 랑에독(Languedoc) 지역에서 왔다. 주요 탈출 경로는 제네바 호수에서 라인강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제네바와 발레(Valais)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난민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된 로잔으로 이어졌다.

스위스는 대부분 난민이 친척이나 도움을 기다리거나 정보를 기다리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통과 경로였으며, 이들은 개신교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프랑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난민들은 이동성이 잦았고, 종종 집을 바꾸었으며, 다수가 가난했고, 당국은 떠돌이 부랑자와 거지들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수만이 영구적으로 정착했으며, 특히 공장과 같은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국은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없는 “거주자”라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베른 당국은 새로운 행정 구조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683년에 설립된 난민 회의소로, 그 범위는 점차 전 영토로 확대되었다. 이곳은 난민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규제 기관 역할을 했으며 정부의 감독을 받았고 1789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했다. 주요 활동은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이러한 자선기금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프랑스 난민과 접촉하고, 자격과 기업가의 능력을 확인하여 새로운 제조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상공 회의소나 기존 제조업체는 자격을 갖춘 위그노에게 영주권을 제안했다.

위그노 난민들 또한 서로 돕기 위해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을 만들었으며, 가장 큰 수당은 로잔에서 부여되었다. 수당은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왕에게 청원, 개신교 왕자와의 접촉, 사회생활 조직, 도덕적 감독, 지역 주민과의 관계와 같은 외교 활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위그노의 유입은 당시 스위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되었다. 심지어 스위스 목회자도 프랑스 목사와의 경쟁을 두려워했으며 1687년 로잔이 난민으로 가득하게 되자 베른 당국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결국, 1694년에 베른은 모든 난민이 떠나도록 명령하고, 독일, 네덜란드 또는 영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17세기 말 스위스의 경제 상황은 밀 위기, 빈곤, 실업으로 매우 나빴다. 하지만 이곳으로 온 위그노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도덕성과 독특한 기술로 스위스에 보상하려는 동기로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 17세기 말 프랑스 문명은 스위스에 경제력 불어넣었고 위그노 장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제네바, 취리히, 바젤에 대한 첫 번째 위그노 난민(1551-1600)의 경제적 기여는 특히 로잔에 섬유 공장, 금세공 및 시계 제조 공장을 설립한 것이다. 그 결과 실업과 빈곤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난민들이 온 베른과 같은 도시에서 프랑스 사업가들은 자본 부족, 자격이



부족한 노동력, 구정권의 비용통성에 직면했다. 하지만 신앙 고백적 연대는 경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위그노 난민에게 거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것을 정당화했다. 각 도시는 이들 기업가에게 대출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세금 면제 또는 시장 보호를 제공했다. 국가는 사업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독점 생산이 허가되었는데, 가령 로잔의 레이스 무역이 있다. 1689년 로잔에는 6,204명의 주민이 있었고, 그중 20%인 1,598명이 위그노 난민이었다.

제네바의 상황은 특별했다. 종교개혁은 1536년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깔뱅이 그곳에 정착했을 때, 그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조직은 이 도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첫 번째 박해 이후, 제네바는 많은 프랑스 난민을 끌어들이었고 이곳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개신교의 확실한 수도가 되었다. 도시 당국은 이들 이주민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했다. 가령, 그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었고 자녀들도 “주민”이라고 불렸지만, “시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선포된 거룩한 복음적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의 열망 때문에” 정착했다고 서면으로 선언하면 받아들여졌다. 많은 위그노 난민들이 제네바를 통과했지만, 일부는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경제에 가장 “유용한” 사람들이었다. 가령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스티엔느(Robert Estienne)의 경우가 그랬다. 그 결과 제네바는 작은 마을에서 유명한 문화 및 경제 중심지로 발전했다. 16세기에 제네바는 출판, 시계 제작, 금세공 및 섬유 산업이 발전했다. 이 도시는 10년 동안 5천 명의 난민과 함께 인구가 두 배로 증가했다. 당시 제네바에서는 깔뱅 이후로 보석 착용이 불법이었을 정도로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규제된 도시여서 세계적인 금세공인들은 사업을 접었지만, 위그노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부 위그노는 철저한 성경적 직업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문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디자인과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금세공인들과 협력했다. 이것이 유명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 프랑스 산업을 거의 완전히 능가했다. 기타 은행, 섬유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제네바는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모여면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다(최용준, 2018: 323-351).

## 8)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1685년경, 위그노 난민들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루터교 개신교 국가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약 5만 명의 위그노가 독일에 정착했고, 그중 2만 명이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에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브란덴부르크(후에 프로이센)는 그들을 환대했는데, 이는 낭트 칙령 폐지 후 불과 몇 달 만에 포츠담 칙령(1685)을 통과시키고 프랑스 팸플릿과 신문을 통해 환영의 메시지를 퍼뜨린 것에서 알 수 있다. 위그노들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프로이센 왕은 그들을 수송하기 위해 배를

보냈으며 그들은 도착한 후 주어진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위그노들이 30년 전쟁 동안 황폐해진 지역과 마을에 정착했는데, 독일 대부분이 아직 사회경제적 피해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농업과 특히 섬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위그노 난민들은 포츠담 칙령의 14개 조항에서 약속된 다양한 특권과 창업 지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성직자에 의한 프랑스적 신앙의 자유와 예배가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법률 체계, 임시 세금 면제, 무료 길드 멤버십, 시민권 부여, 상업 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 조달 등이 보장되었다. 토지 및 무료 건축 자재도 제공되는 등 광범위한 양보를 통해 브란덴부르크는 프랑스 난민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다른 지역보다 유리했다(Fuhrich-Grubert, 2009: 1125-1224).

위그노들은 또한 프로이센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프리드리히(Friedrich Wilhelm, 1649-1688년 재위) 대왕의 하인 중 한 명은 위그노교도였으며, 그들은 왕실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당시 프리드리히 대왕은 독일어를 야만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그의 선호 언어가 되었다. 프로이센 왕의 오랜 친구이자 서신 교환원이었던 볼테르(Voltaire)는 궁정에서 독일어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심지어 1780년대에 독일 문화가 프랑스 문화보다 250년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읽고 싶은 독일어책을 발견했을 때에도 항상 프랑스어로 번역할 정도였다(Gloger, 1985).

프리드리히 대왕은 위그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가령 앙게르뮌데(Angermünde)에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 그리고 베를린에 프랑스 교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경험이 풍부한 농부, 정원사, 장인들이 이미 프랑스 전문 그룹의 엘리트에 속해 있던 전문가인 위그노들과 함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로 왔다. 그들은 이전에 브란덴부르크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과 현대 제조 기술을 가져왔다. 직물 제조업자, 양모 방적공, 모자, 장갑과 스타킹 직조공, 염색공, 태피스트리 및 실크 직공, 리넨 인쇄공, 모자 제조공 등 섬유 산업의 숙련된 근로자 수가 평균 이상이었다. 가발 제작자, 커틀러, 시계 제작자, 거울 제작자, 제과업자, 제빵업자, 제분업자, 에나멜 제작자, 카페테리아뿐만 아니라 상인, 의사, 약사, 공무원과 판사도 여기에 정착했다. 브란덴부르크 군대에는 6백 명의 프랑스 장교도 합류했으며 천 명의 병력이 강화되었다(Gresch, 2009: 101-117).

브란덴부르크의 제조업 또한 위그노 난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 가령, 설탕 및 담배 생산이 그러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태피스트리의 연속적인 생산이었다. 17세기 말까지 태피스트리는 여전히 프랑스의 산업이었지만 이 분야에서 유명한 가문의 일부 난민들이 베를린에 거주했다. 브란덴부르크에 도착한 직후 이들은 태피스트리 생산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그런 다음 공장을 지어 매우 높은 품질의 금, 은, 실크, 양모로 태피스트리를 생산했다. 당시 동아시아지역을 모티브로 한 카펫인 유명한 “중국 시리즈”가 탄생했다. 이처럼 새로운 조국에서 효율적인 제조

업의 발전과 더욱 현대적인 경제 조건을 위한 결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그노 기업가들이었다. 기타 문학, 예술 및 과학의 발전에도 위그노들은 크게 이바지했는데, 가령 이들은 1700년에 설립된 베를린 왕립 과학 및 문학 아카데미의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회원의 3분의 2가 프랑스 출신이었다(Fischer, 2010).

또 다른 4천 명의 위그노교도가 바덴(Baden), 바이로이트(Bayreuth), 안스바흐(Ansbach), 헤센-카셀(Hessen-Kassel),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베테라우(Wetterau), 팔츠(Pfalz)와 츠바이브뤼켄(Zweibrücke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자를란트(Saarland) 등에 정착했고, 1,500명이 함부르크(Hamburg), 브레멘(Bremen), 니더작센(Niedersachsen)에, 300명의 피난민이 셀레(Celle)에 있는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Brunswick-Lüneburg) 공작 게오르크 빌헬름(Georg Wilhelm)의 궁정에서 피난처를 얻었다.<sup>14</sup>

베를린에서 위그노는 도로텐슈타트(Dorotheenstadt)와 프리드리히슈타트(Friedrichstadt)라는 두 개의 새로운 구역을 만들었다. 1700년까지 이 도시 인구의 5분의 1이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베를린의 위그노는 거의 1세기 동안 교회 예배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1806-07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점령한 것에 항의하여 예배 언어를 독일어로 바꾸었다(Fischer, 2010).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여러 회중이 설립되었는데, 덴마크의 프레데리시아(Fredericia), 스톡홀름,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헬싱키, 엠덴이 그 예다.

브란덴부르크에 온 위그노들의 후손 중 다수가 프로이센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랐다. 시인 테오도르 폰타네(Theodor Fontane)(Steinhauer, 1977: 315), 제1, 2차 세계대전의 몇몇 저명한 독일 군사, 문화 및 정치 인물은 위그노 출신이었다. 기타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르 드 마이지에르(Lothar de Maizière)와 전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인 토마스 드 마이지에르(Thomas de Maizière)가 있다(Leiby, 1999: 109). 2014년 American Economic Review의 한 연구는 위그노가 프로이센으로 이주한 것과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연관시켰다(Hornung, 2014: 84-122). 독일 헤센주의 바트 칼스하펜(Bad Karlshafen)에는 위그노 박물관과 위그노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가족 역사, 도서관, 사진 기록 보관소도 있다.<sup>15</sup>

## 9) 프랑스

1787년 11월 7일,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칙령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이들에게도 천주교도와 동등한 시민권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조국을 등

14) [www.hugenotten.de/hugenotten/refuge.php](http://www.hugenotten.de/hugenotten/refuge.php)

15) [www.huguenot-museum-germany.com](http://www.huguenot-museum-germany.com)

졌던 위그노 후손 중 일부는 다시 돌아왔으며 이들은 프랑스의 경제적 발전에도 공헌했다. 18세기 앵글로색슨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은 대학의 근대화에도 이바지했다. 그 예로 기술 교육을 대학에 도입한 것이다. 경제생활과 관련하여서도 그들은 합리적 노동 조직에 기초한 현대 서구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슬럼베르거(Schlumberger), 푸조(Peugeot), 말레(Mallet), 하비랜드(Haviland), 비엘주(Vieljeux), 델라마스(Delamas)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는 19세기에 섬유 제조업체나 양모 산업, 신생 철강 산업의 경영자, 신용 정책을 통해 상당한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던 상업 은행의 경영자도 있다.<sup>16</sup> 가령 말레 은행은 제노바 개신교도인 아이작 말렛(Isaac Mallet)이 1713년에 설립하여, 19세기에 절정에 달했으며 프랑스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아공,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온 위그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그곳에 잘 정착하여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번영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한 노동윤리를 실천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지역에 적합한 여러 산업을 일으켜 그들이 정착한 나라에 거의 모든 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는 디아스포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약 7백만 재외동포 중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며 신앙이 없던 동포들도 해외에서 신앙을 가진 경우도 매우 많다. 이들도 위그노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개신교 노동윤리를 실천하여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 지역 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물론 신앙적 박해가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볼 때 앞서 프랑스 디아스포라 위그노들이 보여준 소중한 교훈과 역사적 유산들을 본받아 각자 처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리스도인들도 현지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정착한 지역과 국가가 발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16) [museeprotestant.org/en/notice/protestants-and-economic-life/?parc=21769](http://museeprotestant.org/en/notice/protestants-and-economic-life/?parc=21769)

보다 구체적으로 위그노들은 종교적 박해와 강제 이주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번성했다. 이는 한국이 겪은 역사적 시련(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과 유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개척 정신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도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위그노들은 인쇄업, 직물업, 금융업,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금융과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프로이센에서는 군수산업과 행정 개혁에 이바지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위그노들이 정착한 나라에서 산업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한국의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그노들은 성실한 노동윤리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었으며, 후대에도 이를 계승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었다. 따라서 한국도 교육과 윤리 경영을 중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과 혁신을 고려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그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넓혔다. 오늘날 한국도 K-문화, IT, 스타트업, 한인 디아스포라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한국 정부는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 이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이러한 위그노의 역사는 좋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그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성원용 (2021). **위그노처럼**. 서울: 국민북스.
- 유경하 (2022). 로잔운동 관점에서 본 위그노 - 디아스포라 위그노가 근대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제60권,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385-415.
- 조병수 (2018). **위그노,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 최용준 (2014).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신앙과 학문**. 19(1), 153-181.
- 최용준 (2018).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3), 323-351.
- Bakker, M. W. & Knetsch, F. R. J. (1985). *Hugenoten in Groningen. Franse vluchtelingen tussen 1680 en 1720*. Groningen: Wolters-Noordhoff / Bouma's Boekhuis.
- Beaudreau, B. C. (2016). Calvinism, Huguenot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 Proceeding at the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Conference in Dec. 2016.
- Birnstiel, E. & Bernat, C. (2001). *La diaspora des huguenots. les refugies protestants de France: Les réfugiés protestants de France et leur dispersion dans le monde (XVIe-XVIIIe siècles)*. Paris: Honoré Champion.
- Botha, C. G. (1919). *The French refugees at the Cape*. Cape Town: Cape Times Limited.
- Calvin, C. (1945). *The Calvin Families*. University of Wisconsin.
- Chater, K. (2012). *Tracing Your Huguenot Ancestors: A Guide for Family Historians*. Pen & Sword.
- Cross, F. W. (1898). *History of the Walloon & Huguenot Church at Canterbury*. Canterbury: Printed for the Huguenot Society of London.
- The Economist. (2008). *The Huguenots in England*. 28 August.
- Ellis, J. (2002). *Glassmakers of Stourbridge and Dudley 1612-2002*. Harrogate: Jason.
- Fischer, G. (2010). *Die Hugenotten in Berlin*. Berlin: Hentrich & Hentrich Verlag.
- Fleming, A. (1953). *Huguenot influence in Scotland*. W. Maclellan.
- Forest, H. (2021) The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Huguenot Exodus. (hercynianforest.medium.com/the-social-and-economic-significance-of-the-huguenot-exodus-695badcf947)
- Fourie, J. & Von Fintel, D. (2014). Settler skills and colonial development: the Huguenot wine-makers in eighteenth-century Dutch South Africa. *The Economic History Review*. 67 (4). 932-963.
- Fuhrich-Grubert, U. (2009). Minoritäten in Preußen. Die Hugenotten als Beispiel. Neugebauer,



- W. (Hrsg.) *Handbuch der Preußischen Geschichte*. Bd. 1: Das 17. und 18. Jahrhundert und Große Themen der Geschichte Preußens. De Gruyter, Berlin.
- Gloger, B. (1985). *Friedrich Wilhelm – Kurfürst von Brandenburg. Biographie*. Berlin: Verlag Neues Leben.
- Green, B. (1998). Settlement and Building to 1836, *A History of the County of Middlesex* Volume 11, 91-95.
- Green, M. (2018). Bridging the English Channel: Huguenots in the educational milieu of the English upper class. *Paedagogica Historica*. 54(4), 389-409.
- Greengrass, M. (1985) Protestant exiles and their assimilation in early modern England. *Immigrants & Minorities*. 4(3), 68-81.
- Gresch, E. (2009). *Die Hugenotten. Geschichte, Glaube und Wirkung*. 4., überarbeitete Auflage.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Griffin, S. (2018). *The Huguenot Diaspora and the American Revolution*.
- Gwynn, R. (1983). The number of Huguenot immigrants in Englan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9(4), 384-395.
- Hornung, E. (2014). Immigration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The Huguenot Diaspora in Prussia.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 84-122.
- Howat, G. M. D. (1974). *Stuart and Cromwellian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 Hylton, R. (2005). *Ireland's Huguenots and Their Refuge, 1662-1745: An Unlikely Haven*. Brighton and Portland, OR: Sussex Academic Press.
- Labrousse, E. (1961). Le Refuge hollandais: Bayle et Jurieu. *Dix-septième siècle, Revue publiée par la Société d'étude du XVIIe siècle*. n° 76-77, 75-93
- Lavender, A. (1989). *French Huguenots: From Mediterranean Catholics to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Peter Lang.
- Le Hir, M. P. (2020). *French Immigrants and Pioneers in the Making of America*. McFarland.
- Leiby, R. (1999). *A. The Unification of Germany, 1989-1990*. Greenwood Publishing Group.
- Lugan, B. (1996). *Ces Français qui ont Fait l'Afrique du Sud*. C. de Bartillat.
- Luu, L. B. (1997). French-speaking refugees and the foundation of the London silk industry in the 16th century. *Proceedings-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26, 564-576.
- Mckee, J. & Vigne, R. (2013). *The Huguenots: France, Exile & Diaspora*.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 Schilling, H. (1983). Innovation through migration: the settlements of Calvinistic Netherlanders in



- sixteenth-and seventeenth-century Central and Western Europe. *Histoire Sociale/Social History*. Vol. XVI, Nr. 31 (May 1983): 7-33.
- Scouloudi, I. (Ed.) (1987). *Huguenots in Britain and Their French Background, 1550-1800: Contributions to the Historical Conference of the Huguenot Society of London, 24-25 September 1985*. Basingstoke: Macmillan.
- Scoville, W. C. (1952). The Huguenots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0, No. 4, 294-31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les, S. (1867). *The Huguenots: their Settlements, Churches, & Industries in England and Ireland*. London: John Murray.
- Steinhauer, H. (1977). *Twelve German Novell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ndstrom, R. A. (1976). French Huguenots and the Civil List, 1696-1727: A Study of Alien Assimilation in England. *Albion*, 8(3), 219-235.
- Trim, D. J. B. (1999). The Secret War of Elizabeth I: England and the Huguenots during the early Wars of Religion, 1562-77.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27(2), 189-199.
- Walker, E. (1968). *A History of Southern Africa*. Lond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 Watkinson, W. L. & Davison, W. T., eds. (1875). William Shaw and South Africa. *The London Quarterly Review*, Vol. 44. J. A. Sharp.
- <https://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museeprotestant.org/en/notice/protestants-and-economic-life/?parc=21769>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museeprotestant.org/en/notice/the-huguenot-refuge-in-america/?parc=31903>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www.huguenot-museum-germany.com>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www.hugenotten.de/hugenotten/refuge.php>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 (2025년 1월 30일 검색)

#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of Diaspora Huguenots

최 용 준 (한동대학교)

### 논문초록

본 논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박해를 받아 전 세계로 흩어진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다. 이들은 당시에 비록 난민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장인, 섬유업자,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의사, 상인들이었다. 낭트 칙령(L'édit de Nantes)이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의 퐁텐블로 칙령(L'édit de Fontainebleau)에 따라 폐지된 이후 더 많은 위그노가 스위스뿐만 아니라 남아공,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지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그렇다면 왜 이 위그노들은 당시 천주교도들과 다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역동적으로 넘쳐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이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고찰한 후 이러한 역사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 결론을 내린다.

주제어: 위그노, 칼빈주의, 기업가정신, 노동윤리, 산업혁명

## 영문학 연구의 반성경적 전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The Anti-Biblical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and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deology

현 숙 경 (Sook Kyong Hyun)\*\*

####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aradigm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Judith Butler's gender theory. Butler's concept of gender performativity has significantly reshaped literary criticism, challenging traditional gender binaries and emphasiz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ident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ender performativity, its impact on literary canon revision, and its intersection with feminist and queer theory. While Butler's work has contributed to expanding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this study also highlights its theoretical limitations, particularly its neglect of biological sex and the instability it introduces to identity formation. Additionally, the paper critiques the broader sociocultural consequences of dismantling normative gender structures. Through a balanced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assess both the contributions and the challenges posed by Butler's gender theory within literary studies, arguing for a nuanced approach that considers both social constructs and inherent human identity.

**Key words:** gender performativity, Judith Butler, English literary studies, queer theory, gender ideology

\* 2025년 2월 11일 접수, 3월 3일 최종수정, 3월 5일 게재확정.

\*\* 한국침례신학대학교(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실용영어학과 교수, 대전시 북유성대로 190, sookkhyun@kbtus.ac.kr

## I. 서론

영문학 연구는 오랫동안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미적 가치를 탐구하는 전통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형식주의와 신비평 같은 방법론은 문학 작품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 진리와 인간 경험을 발견하고자 했다. 셰익스피어나 밀턴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문학 연구의 중심에 자리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영문학 연구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의 비판적 이론들이 대두되면서, 문학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에서 사회적 규범과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도구로 재구성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젠더 이론(Gender Theory)은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 전환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된다. 그녀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개념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생물학적 기초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전통적인 성별 개념과 젠더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 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이후의 영문학 연구는 문학을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재구성하는 매체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강화했다. 문학 텍스트는 더 이상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거나 인간 경험의 초월성을 반영하는 도구로 간주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존 규범을 전복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 연구가 가진 미학적 깊이와 상징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정치적 이념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논문에서는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의 초점과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문학 연구가 본연의 예술적 깊이와 보편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성경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전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패러다임 전환: 기존 정전 중심 연구에서 비판적 이론으로

### 1. 전통적인 정전(Canon) 중심 연구: 패러다임 전환 이전

영문학 연구는 오랫동안 문학의 미적 가치와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전통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은 ‘정전’이라 불리는 특정 작품들을 문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었다.

정전은 주로 셰익스피어(Shakespeare), 밀턴(Milton), 디킨스(Dickens)와 같은 서구 백인 남성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작품은 보편적 진리와 인간 경험을 반영하는 문학의 정수로 평가되었다(Wellek & Warren, 1949). 이 시기의 문학 연구는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고전적이고 영속적인 가치의 산물로 간주하며, 학문적 분석과 교육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이 시기의 문학 연구는 텍스트 자체의 내적 구조와 언어, 미적 가치를 강조한 형식주의(Formalism)와 신비평(New Criticism)의 방법론에 의존했다. 신비평은 문학 작품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강조하며,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의 구조와 언어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클린스 브룩스와 로버트 펜 워렌(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은 *Understanding Poetry*에서 “시는 분명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과 세계의 살아있는 충만함과 관계되어 있다”(Brooks & Warren, 1938: 9)고 주장하고, 작품을 외부적 요소(예: 작가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로부터 독립된 단위로 간주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작품의 미적 완결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문학을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술로 평가했다. 예컨대,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편적 관점에서 탐구하였고, T. S. 엘리엇(T. S. Eliot)의 *The Waste Land*는 현대인의 영적 공허와 위기를 묘사함으로써 “보편적 인간 경험”(Wellek & Warren, 1949: 3)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려 했다.

이러한 정전 중심의 연구는 작품의 미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전의 선택 기준이 백인, 서구,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 작가, 비서구 작가, 소수 집단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정전이 특정 계층과 문화를 대표하면서 이를 문학의 보편적 기준으로 간주한 것은, 문학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형식주의와 신비평은 작품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이해하려는 접근법을 취했지만, 텍스트가 생성된 사회적·역사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신비평은 문학이 특정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논의하지 않고, 작품의 미학적 완결성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Jameson, 1981: 17-23 ; Bloom, 1994: 20-25). 이는 문학을 보다 넓은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며,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와 신비평에 기반한 문학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비판적 이론들에 의해 강하게 도전받게 된다. 페미니즘 비평, 탈식민주의, 마르크스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은 기존 정전의 백인 남성 중심성과 텍스트 자율성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며, 문학 연구가 작품의 미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맥락과 권력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전통적 정전 중심 연구는 이후 문학 연

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 2.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이후의 변화

### (1) 기존 정전에 대한 비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영문학 연구는 전통적인 정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시기는 시민권 운동, 여성 해방 운동, 탈식민지화, 반전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문학 연구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문학은 더 이상 순수한 미적 가치를 지닌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도구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 문학 정전이 백인, 서구,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형성되었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같은 비판은 페미니즘 비평(Feminist Criticism),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의 학문적 흐름 속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정전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목소리를 포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캐서린 벨시(Catherine Belsey)와 제인 무어(Jane Moore)는 *The Feminist Reader*에서 기존 문학 정전이 가부장적 시각을 반영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해 왔다고 지적했다(Belsey & Moore, 1997: 2). 그들은 여성 작가의 작품을 재발견하고, 문학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젠더 권력 관계를 학문적 담론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Marxism and Literature*에서 기존 문학 연구가 ‘고급 문화(high culture)’로서의 문학만을 강조하며, 대중문화와 노동 계급의 문학적 표현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Williams, 1977: 121). 그는 문학이 단순한 심미적 분석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계급의 경험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윌리엄스는 기존 정전이 상류 계급의 가치와 미적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 계급의 문학적 표현은 평가 절하되거나 아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발전에 기여하며, 기존 정전의 권위를 재검토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또한, 헨리 루이스 게이즈 주니어(Henry Louis Gates Jr.)는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을 정전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The Signifying Monkey*에서 흑인 문학이 독자적인 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 백인 중심적 정전에서 배제된 채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Gates, 1988: 14). 게이즈는 흑인 문학의 해석을 위해 아프리카계 구술 전통과 서구 문학의 관계를 분석하며, 문학 연구가 기존 서구 중심적 정전 개념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 작가들의 작

품을 포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며, 문학 연구에서 인종과 정체성의 문제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게 했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의 문학 연구는 기존 정전의 권위적 관점을 넘어서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려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문학은 단순한 예술적 가치의 논의를 넘어, 권력과 억압의 구조를 비판하고 소외된 목소리를 조명하는 학문적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 (2) 문학을 사회 비판의 도구로 활용

1960년대 이후, 문학 연구는 기존의 미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순과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는 도구로서 문학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문학은 단순히 예술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체로 이해되었다.

윌리엄스는 문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성되고 작동한다”(Williams, 1977: 128)고 강조하며, 문학 텍스트를 단순한 개인적 창작물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과 깊이 연관된 산물로 보았다. 따라서 문학은 단순한 미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Gender Trouble*에서 문학이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것”(Butler, 1990: 33)이라고 주장하며, 문학이 젠더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이를 사회적 구성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Beloved*를 통해 노예제의 역사와 흑인 여성의 억압 경험을 재조명하며, 문학이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를 되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문학은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침묵 속에 묻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Morrison, 1993: 3)고 언급하며, 문학이 지배 담론에 도전하고 대안적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문학은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문학 연구가 단순히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학이 맺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관계망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 (3) 후기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부상

1960년대 이후,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문학 연구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으며 텍스트와 담론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기구조주의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자의 해석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탈식민주의는 서구 중심의 문학 담론이 가진 편향성과 배타성을 비판하며, 비서구적 관점과 목소리를 문학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강화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Of Grammatology*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독자의 해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Derrida, 1976: 18). 그는 언어와 텍스트가 독자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존의 권위적인 의미 체계를 해체했다.

한편, 에드워드 사이드는 *Orientalism*에서 문학이 단순한 미학적 즐거움을 위한 산물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담론임을 지적한다. 그는 서구 문학이 동양을 “타자화”하면서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하며, “문학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자, 그것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Said, 1978: 6)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는 기존 정전의 서구 중심성을 해체하고, 비서구적 문학을 학문적 담론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식민주의적 논의를 이어받은 호미 바바(Homi Bhabha)는 *The Location of Culture*에서 탈식민적 텍스트가 문화 간의 하이브리드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그는 “탈식민적 문학은 기존의 문화적 경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혼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을 창출한다”(Bhabha, 1994: 12)고 보았으며, 문학이 지배 서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실 질적인 문학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그의 소설 *Things Fall Apart*에서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공동체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생생히 그려내며, 서구적 시각에 맞서 아프리카인의 목소리를 담아냈다(Achebe, 1958). 아체베는 문학을 서구의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는 문학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III. 젠더 이론의 도입과 그 영향

#### 1. 젠더 이론의 도입 시기와 맥락

젠더 이론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본격적으로 영문학 연구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로, 페미니즘 운동, 젠더 평등 논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문학 연구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던 때였다. 1960년대의 페미니즘 제2물결은 단순히 여성의 법적 권리 증진을 넘어, 가부장제, 젠더 불평등, 성적 억압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젠더’라는 개념이 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분석 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며, 젠더가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구성되는 수행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The Second Sex*(1949)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Beauvoir, 1949: 283)라고 주장하며, 젠더 정체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의 논의는 이후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 도입되는 데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

1970년대 이후, 젠더 이론은 문학 연구에서 기존의 정전 중심 연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여성과 성소수자의 문학적 위치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기존의 백인 남성 중심적 정전 비판, 후기구조주의의 의미 해체, 탈식민주의의 타자성 논의 등은 젠더 이론이 학문적 담론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젠더 이론은 단순한 비평적 접근이 아니라, 문학과 문화 연구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학문적 전환점이 되었다.

#### 2. 젠더 이론의 주요 발전

##### (1) 페미니즘 문학 비평: 젠더 이론의 출발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젠더 이론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다.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문학 텍스트가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젠더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탐구하며 기존 문학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케이트 밀렛(Kate Millett)의 *Sexual Politics*는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저작으로, 문학 텍스트에서 젠더와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Millet, 1970). 밀렛은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가 종종 대상화되거나 억압된 방식으로 묘사된다고 비판하며, 문학이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의 주장은 이후 문학 연구

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문학이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애드리언 리치(Adrienne Rich)는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1980)에서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개념을 제시하며, 문학과 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억압받아 왔는지 비판했다. 그녀는 이성애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것처럼 강요되는 사회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학 연구에서 비이성애적 여성 경험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ich, 1980: 648-650).

이 시기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문학 텍스트에서 여성의 억압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했다. 예컨대, 샬럿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의 *The Yellow Wallpaper*는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신적 억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문학이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어떻게 침묵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Gilman, 2017). 길먼은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서 “I’ve got out at last . . . in spite of you and Jane. And I’ve pulled off most of the paper, so you can’t put me back!”(Gilman, 2017: 15)라고 서술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2) 퀴어 젠더 이론의 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1990년대 이후, 버틀러의 *Gender Trouble* 출판은 젠더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버틀러는 젠더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의해 구성되고 반복적 수행을 통해 형성된다는 ‘젠더 수행성’ 개념을 제시했다. 그녀는 “젠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다”(Butler, 1990: 25)고 주장하며,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임을 강조했다.

버틀러의 이론은 문학 연구에서 젠더 표현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녀의 작업은 문학 텍스트가 젠더 규범의 경계를 넘어 성적 다양성과 유동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퀴어 이론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와 같은 동성애 성향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하며, 이들이 젠더와 성적 규범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문학적 내러티브를 구성했음을 강조했다.

## 3.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비판적 고찰

젠더 이론은 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기존 백인 남성 중심의 정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려는 시도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문학의 미학적·보편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페미니즘 비평과 퀴어 젠더 이론은 문학 텍스트를 이념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텍스트를 사회적 억압과 권력 구조의 재현으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으며, 문학 작품이 지닌 본래적이고 초월적인 미학적 가치와 문학적 형식에 대한 논의를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간주함으로써, 문학 연구에서 객관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접근은 젠더가 단순한 사회적 수행의 결과라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젠더 이론의 한계를 드러냈다.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문학 연구는 종종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거나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는 문학 연구가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학문적 전통에서 벗어나, 특정 이념적 틀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젠더 이론을 적용한 문학 연구가 보다 학문적 균형을 유지하며, 이론적 깊이와 문학적 가치 모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 IV.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

### 1. 이분법적 젠더 해체와 젠더 개념의 확장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고,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녀는 *Gender Trouble*의 1999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특정한 형태의 젠더 표현을 거짓된 것, 혹은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젠더 표현을 진리(truth), 혹은 원래의 형태(original)로 규정해버리는 진리의 체제들에 반대했다. ... 본 저서의 목적은 특정한 형태의 젠더만 실재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었다.(Butler, 1999: viii)

이와 같은 주장은 젠더를 단순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비이성애적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버틀러는 젠더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과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몇 가지 논란을 야기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호르몬, 유전자, 뇌 구조 등 생물학적 차이는 젠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수행 행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배런-코헨(Baron-Cohen, 2003)은 *The Essenti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Brains and the Truth About Autism*에서 “The female brain is predominantly hard-wired for empathy. The male brain is predominantly hard-wired for understanding and building systems.”(Baren-Cohen, 2003: 1)라고 주장하며, 남성과 여성의 뇌 구조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젠더 정체성이 전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차이에 기반한 선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젠더 체계를 억압적 구조로 단순화할 경우, 젠더 개념이 모호해지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젠더 개념의 해체는 가정, 생식, 사회적 안정성과 같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유동적인 젠더 개념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드레거(Dreger, 2008)는 *One of Us: Conjoined Twins and the Future of Normal*에서 “We should be cautious in promoting the idea that gender is entirely fluid, as this can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legal, medical, and social policies.”(Dreger, 2008: 145)라고 경고하며, 젠더 개념이 지나치게 유동적으로 해석될 경우 법적, 의료적, 그리고 사회적 정책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드와 이글리(Wood & Eagly, 2012)는 *Biosocial Construction of Sex Differences in Behavior*에서 “Although gender roles evolve over time, they are still deeply embedded in the social structures that contribute to stability and cohesion in human societies.”(Wood & Eagly, 2012: 55)라고 주장하며, 젠더 역할이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이는 인간 사회의 결속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될 경우 사회적 질서가 흔들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 2. 생물학적 성을 배제한 젠더 수행성 개념

버틀리의 핵심 개념인 ‘젠더 수행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고, 젠더를 사회적 수행 행위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젠더적 표현 뒤에 젠더 정체성이란 것은 없다; 젠더 정체성은 소위 정체성의 결과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표현’에 의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Butler, 1999: 33). 즉, 젠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수행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성애 중심적 젠더 규범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반복적 수행의 결과일 뿐이며,

새로운 젠더 정체성은 비이성애적 성적 표현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생물학적 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와 배치될 수 있다. 젠더가 수행적 행위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경우, 신경학적 요소나 생물학적 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 배런-코헨(2003)과 파우스토-스털링(Fausto-Sterling,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뇌 구조 차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젠더 정체성과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젠더 수행성이 지나치게 유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젠더가 단순한 수행적 행위라면, 젠더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드레거(Dreger, 2008)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If gender is seen as purely performative and fluid, this could lead to significant confusion in legal, medical, and social contexts”(Dreger, 2008: 145). 이와 같은 우려는 젠더의 수행성이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지나치게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섹스, 젠더, 성적 지향의 인과적 연속성 해체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sex),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부정하며, 이 세 요소가 상호 연관된다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한다. 심지어 생물학적 성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섹스와 젠더의 구분 자체를 무효화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도 ‘섹스’라고 불리는 이 구성물은 젠더처럼 문화적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섹스와 젠더는 전혀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섹스는 이미 항상 젠더였을 것이다”(Butler, 1999: 11).

그러나 이 주장은 생물학적 성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생물학적 성별은 단순히 사회적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학적, 유전적,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이다(Moir & Jessel, 1992). 또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성적 지향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 경험과도 배치된다. 만약 성적 지향이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이 임의적일 수 있으며, 이는 성적 자기 이해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4. 정상 규범 해체로 인한 모든 일탈적 성적 행태의 정당화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정상성과 규범 개념 자체를 억압적 구조로 간주하며, 이를 문제시한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젠더 규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수용할 것을 강조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윤리 기준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첫째, 모든 성적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극단적 사례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존 E. 시리(Seery, 2006)는 *Antigone's Claim*에서 버틀러가 근친상간 금기를 문제 삼으며, 전통적인 성적 규범의 해체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틀러의 논리는 근친상간 금기를 넘어 모든 성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Seery, 2006: 62). 둘째, 버틀러의 논리는 다양한 성적 행태(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윤리 기준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Callis, 2009 ; Tweedy, 2010 ; Dell-Aversano, 2010).

이러한 점에서,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성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과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젠더 연구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사회적 윤리성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조화를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 V. 버틀러의 젠더 이론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전통적인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젠더 정체성을 수행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이론은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대중 담론에서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버틀러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 수행성, 규범성 해체, 퀴어 이론, 그리고 인간 주체성의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젠더 수행성 이론과 그 한계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젠더를 단순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녀는 *Gender Trouble*에서 “젠더는 특정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구성되며, 그 이면에 고정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utler, 1999: 33). 이는 젠더가 특정한 신체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행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젠더 수행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물학적 성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생물학적 성별은 단순한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ollins, 2003: 62).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과 유전자, 뇌



의 구조적 차이 등은 젠더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젠더가 단순한 사회적 수행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Baron-Cohen: 2003).

둘째, 젠더 수행성 개념이 실천적 차원에서 적용될 경우, 개인의 젠더 정체성이 극도로 유동적인 개념이 되어 정체성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Dreger, 2008: 71). 만약 젠더 정체성이 수행적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적용된다면, 개인의 성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법적,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2. 규범성 해체와 그 사회적 영향

버틀러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사회적 구조가 권력과 억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체하려 한다. 그녀는 정상성(normativity) 자체가 사회적 강요이며, 젠더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본다(Butler, 1999: xxviii). 그러나 이러한 규범 해체는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규범이 억압적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은 단순한 억압적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McIntyre, 2012). 특히 가족, 결혼, 부모 역할과 같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은 인간 공동체의 지속성과 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규범 해체가 모든 형태의 성적 정체성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Seery(2006)는 버틀러의 *Antigone's Claim*에서 버틀러가 근친상간 금기(taboo)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러한 논리가 윤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모든 규범을 해체하는 것이 단순히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3. 퀴어 이론과 성적 정체성 개념의 불안정성

버틀러의 이론은 퀴어 이론(Queer Theory)의 핵심적인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성적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이성애 중심적(heteronormative)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개인의 정체성이 지나치게 가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성적 지향이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이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성적 지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 연구 결과

와 배치된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정체성은 단순한 사회적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물학적·심리적 요인 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avin-Williams, 2017).

또한, 버틀러의 퀴어 이론은 법적·사회적 차원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완전히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면, 법적 제도(예: 성별 변경, 동성 결혼, 차별 금지법 등)는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법적 성별 이 완전히 수행적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수시로 변경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젠더와 법률의 관계에서 중요한 논쟁을 형성하고 있다(Balkin, 1998).

#### 4. 인간 주체성 개념의 모호성

버틀러는 인간의 주체성을 고정된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녀는 젠더 정체성이 수행적이며, 개인의 자아(identity)는 규범과 수행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데리다의 후기구조주의적 개념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Gough, 2024).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인간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사회적·문화적 요소에 의존하는 개념으로 환원할 경우,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만약 정체성이 완전히 수행적이라면, 개인의 자기 이해와 존재의 본질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실존주의적 인간관과 상충할 수 있다(Tizchang, 2024).

둘째, 인간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개인의 경험과 자율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유년기 경험, 신경학적 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 단순히 수행적 행위의 반복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Baumeister, 1999).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수행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학문적·사회적 담론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의 이론은 문학, 철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했으며,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젠더 수행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물학적 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사회적 규범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젠더 개념을 전적으로 사회적 수행의 결과로 보는 것은 심리학적, 생물학적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중요한 학문적 공헌을 했지만, 그 이론적 한계와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VI.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1990년대 이후 영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녀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문학 연구에서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버틀러의 이론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 1. 문학 정전에 대한 재해석과 비판적 시각의 확대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등장한 이후, 전통적인 문학 정전에 대한 재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이론은 문학 텍스트가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해체하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Salih, 2007) 이에 따라 기존의 영문학 정전이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본격화되었으며, 젠더 및 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석이 강조되었다.

페미니즘 문학 연구자들은 버틀러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통적 문학 작품 속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젠더 수행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확대해 나갔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Twelfth Night*와 같은 작품은 남녀 간의 젠더 수행성을 전복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젠더 정체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었다(Smith, 2004).

또한, 20세기 영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던 T. S. 엘리엇, 조지 오웰(George Orwell),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예컨대, 엘리엇의 *The Waste Land*는 전통적으로 모더니즘적 실존의 위기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남성성(masculinity)과 젠더 불안(gender anxiety)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다(Pondrom, 2005). 이처럼 젠더 이론은 기존 정전을 해체하거나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었다.

### 2. 퀴어 문학 연구의 부상과 성적 정체성 논의 확산

버틀러의 *Gender Trouble*이 출판된 이후, 영문학 연구에서 퀴어 이론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퀴어 이론은 성적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의 규범을 비판하고, 성적 지향과 젠더 표현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문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었으며, 동성애적 정체성과 퀴어 서사가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다.

버틀러의 이론은 오스카 와일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와일드의 *The Picture of Dorian Gray*는 전통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미학주의를 다룬 소설로 평가되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욕망과 젠더 수행성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Sullivan, 2003).

또한, 울프의 *A Room of One's Own*과 같은 작품도 퀴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었다. 울프는 여성 작가들이 기존의 가부장적 문학 정전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Woolf, 1929, 3-5). 이러한 논의는 이후 퀴어 이론과 결합되면서,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수행적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Sadjadi & Hojabri, 2019: 10-20).

### 3. 후기구조주의적 텍스트 해석과 젠더 수행성 분석의 확산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후기구조주의적 텍스트 해석과 결합하면서, 문학 연구에서 의미 생성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후기구조주의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으며, 해석하는 독자의 위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적 흐름이다(Derrida, 1976: 50-60). 버틀러는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을 젠더 개념에 적용함으로써, 젠더 정체성이 단일한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Butler, 1999: 33).

이러한 개념은 문학 연구에서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Wuthering Heights*에서 히스클리프(Heathcliff)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 맥락에 따라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수행적 정체성을 보인다(Bernabeu, 2021: 120-135). 연구에 따르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젠더 수행성 개념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무너뜨리며, 서사의 구조 자체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Newman, 1990: 1029-1035).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 수행성이 문학 속 캐릭터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맥락적 요소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 문학 연구의 정치화와 젠더 중심적 분석의 편향성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문학 연구가 점점 더 정치화되고 특정한 이념적 틀 속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젠더 수행성과 퀴어 이론이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이 점점 더 이념적이고 규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젠더 이론과 퀴어 이론이 확산되면서, 문학 연구에서 특정한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Diane Bell은 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문학 작품이 젠더와 성적 규범을 얼마나 전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문학 연구가 본연의 예술적 깊이를 상실하고, 특정 이념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Bell, 1999: 120-135).

또한, Harvey와 같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버틀러의 이론이 문학 연구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Harvey는 문학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은 문학 본연의 다층적 의미와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Harvey, 2012: 100-115).

## VII. 성경적 관점에서 본 버틀러의 젠더 이론 비판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전통적인 젠더 개념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뒤바꾸며, 영문학과 인문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녀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젠더와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본질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며,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 질서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상충하는 문제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버틀러의 주요 주장들을 중심으로 젠더 수행성 개념, 규범적 권위, 퀴어 이론, 그리고 주체성의 재구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1. 젠더 수행성 이론과 성경적 성 역할

버틀러는 젠더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사회적 규범에 따라 반복적인 행위로 구성된 수행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녀는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sex)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권력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Gender Trouble*에서 “젠더적 표현 뒤에 진정한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젠더는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젠더를 유동적이고 비고정적인 개념으로 해석한다(Butler, 1999: 33).

그러나 성경은 젠더와 성 정체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본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명확히 선언하며, 남성과 여자로서의 구분은 창조의 본질적 일부임을 강조한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은 이 창조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유한 성별의 중요성을 상대화한다. 그녀의 이론은 성별과 성 정체성을 사회적 규범의 결과로 환원함으로써, 창조주가 부여하신 인간의 본질적 차이를 왜곡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은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따라 역할이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한 목적과 책임을 부여하신 창조물이다. 따라서 젠더를 단순히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백히 상충한다.

## 2. 규범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성경적 도덕 질서

버틀리의 논리에 의하면, 젠더와 성적 규범은 억압적 권력 구조의 산물(Butler, 1999: 25)이며, 이를 해체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녀는 성적 규범이 특정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며, 이를 해체함으로써 성적 자유와 젠더 해방을 추구한다(Butler, 1993: 95).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성적 규범과 도덕 질서는 인간이 만든 억압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불변의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시하며, 성적 행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경적 성 윤리는 단순히 규범적 제한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삶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다.

버틀리의 주장은 성적 규범을 억압적 장치로 간주하며, 이를 해체하고 개인의 성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질서를 거부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성경은 도덕적 질서가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번영케 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무시하는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3. 퀴어 이론과 성경적 성 윤리의 충돌

버틀리는 퀴어 이론의 핵심 사상가로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고정된 것이 아닌,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녀는 이성애 중심의 규범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억압적 구조라고 비판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표현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적 관계와 젠더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마태복음 19장 4-5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과 성적 관계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로마서 1장은 동성애적 행위를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백히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버틀리의 퀴어 이론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심지어 근친상간과 같은 비정상적 성적 행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성경적 윤리와 완전히 대립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 4. 주체성의 재구성과 성경적 인간관의 대립

버틀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고정된 본질적 실체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와 규범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 인간관을 부정한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창 1:26-27),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에 뿌리를 둔다. 성경은 인간이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존재라고 강조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선언하며,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인 것임을 명확히 한다.

버틀리의 유동적 주체성 개념은 인간의 고정된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인간을 단순히 사회적 맥락의 산물로 환원한다. 이는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훼손한다.

## VII. 결 론

오늘날 영문학 연구는 단순한 미학적 탐구를 넘어, 젠더, 권력, 사회적 규범을 재구성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은 젠더를 생물학적 성과 분리된 사회적 구성물로 보고, 반복적 수행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전통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고, 성적 정체성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틀을 제공하며,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규범과 사회적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이론은 성경적 창조 질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성별과 성적 관계에 대한 전통적 윤리 체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점점 더 탈(脫)성경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며,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적 기준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율적 인간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문학 연구의 방향이 필요하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면서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명확히 선언한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예수님은 결혼의 질서를 언급하시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젠더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문학 연구에서도 젠더를 사회적 수행이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학 속 젠더와 가족 관계를 탐구할 때,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C.S. 루이스(C.S. Lewis)의 *The Chronicles of Narnia* 시리즈나,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학 연구에서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정상성과 규범 자체를 억압적이라고 간주하며,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인간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로마서 1장 24-27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성적 행태가 결국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성적 윤리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 기준임을 강조한다. 또한, 잠언 14장 34절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말하며, 윤리적 기준이 사회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문학 연구가 단순히 성적 자유나 규범 해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인간 본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문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윤리적 고민을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도덕적 가치가 없는 문학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윤리를 반영한 문학 작품을 더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향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문학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또한, 문학 연구가 단순한 권력 비판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고민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문학 연구의 목적 역시 정치적 이념이 아닌 인간 본질 탐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문학 연구는 점점 더 젠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학의 본래 목적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2-13절에서 “모든 것을 들었으니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학문 연구 역시 인간이 본래 가져야 할 삶의 목적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문

학이 단순히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이 된다면, 문학의 본래적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문학 연구가 특정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학문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문학의 미학적 가치와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젠더 중심의 해석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철학적·신학적·미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버틀리의 젠더 이론은 젠더 개념을 확장하고 전통적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윤리적 기준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학 연구에서도 나타나며, 문학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문학 연구는 젠더 수행성 개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 의미와 도덕적 질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는 단순히 현대 이론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적 가치가 문학과 문화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문학 연구는 단순한 이념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경적 가치관과 학문적 탐구가 조화를 이루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젠더 연구를 포함한 모든 문학 연구는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경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학문 연구의 올바른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Achebe, C. (1958). *Things Fall Apart*. London: Heinemann.
- Balkin, J. M. (1998). *Cultural Software: A Theory of Ide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aron-Cohen, S. (2003). *The Essenti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Brains and the Truth about Autism*. New York: Basic Books.
- Baumeister, R. F. (1999).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Beauvoir, S. de. (2011) *The Second Sex*. Trans. Borde C. & Malovany-Chevallier, S. New York: Vintage Books.
- Bell, D. (1999). *Performativity and Belonging*. London: Routledge.
- Belsey, C. & Moore, J. (Ed.) (1997). *The Feminist Reader: Essays in Gender and the Politic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Macmillan.
- Bernabeu, M. (2021). Catherine Earnshaw meets Katherine Lester: Revisioning the Brontë body by sustaining the self in William Oldroyd's *Lady Macbeth* (2016). *Brontë Studies*, 46(3), 203-214.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loom, H. (1994). *The Western Canon: The Books and School of the Ages*. New York: Harcourt Brace.
- Brooks, C. & Warren, R. P. (1976). *Understanding Poetry*. Fourth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London: Routledge.
- Butler, J. (1999).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 Butler, J. (2000).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llis, A. S. (2009). Playing with Butler and Foucault: bisexuality and queer theory. *Journal of Bisexuality*, 9(3-4), 213-233.
- Dell-Aversano, C. (2010). The love whose name cannot be spoken: queering the human-animal bond. *Journal for Critical Animal Studies*, 8(1/2), 73-125.
- Derrida, J. (1976). *Of Grammatology*. Trans. Spivak, G. C.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reger, A. D. (2008). *Hermaphrodites and the Medical Invention of S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ates, H. L. Jr. (1988). *The Signifying Monkey: A Theory of African American Literary Cri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lman, C. P. (2017). *The Yellow Wallpaper and Other Stories*. Mineola: Dover Publication.
- Gough, A. (2024). Cyborg subjectivities and liminal experiences. in *Gender and Environmental Education: Feminist and Posthuman Perspectives* (pp. 129-145). London: Routledge.
- Jameson, F.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cIntyre, A. (2012). *Virtue and the Ethics of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tt, K. (1970). *Sexual Politics*. Garden City: Doubleday.
- Moir, A. & Jessel, D. (1992). *Brain Sex: The Rea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New York: Dell.
- Morrison, T. (1993). *Beloved*. New York: Alfred A. Knopf.
- Newman, B. (1990). The situation of the looker-on: Gender, narration, and gaze in Wuthering Heights. *PMLA*, 105(5), 1029-1041.
- Pondrom, C. N. (2005). T. S. Eliot: The performativity of gender in The Waste Land. *Modernism/modernity*, 12(3), 415-432.
- Said, E. W.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Savin-Williams, R. C. (2017). *Mostly Straight: Sexual Fluidity Among M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ery, J. E. (2006).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 (or, Steiner contra Butler). in Carver T. & Chambers S. A. (Ed.). *Judith Butler's Precarious Politics: Critical Encounters*. London: Routledge.
- Smith, J. (2004). *Shakespeare and Gender Trouble*. Oxford: Blackwell.
- Sullivan, N. (2003). *A Critical Introduction to Queer Theo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 Biblica.
- Tizchang, M. (2024). Gender, embodiment, and the possibilities of feminist phenomenology. *Occidental Studies*, 4(1), 23-45.
- Tweedy, A. (2010). Polyamory as a sexual orien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79(4), 1461-1515.

Wellek, R. & Warren, A. (1949).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Wilde, O. (1890). *The Picture of Dorian Gray*. London: Lippincott's Monthly Magazine.

Williams, R. (1977). *Marxism s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ood, W. & Eagly, A. H. (2012). Biosocial construction of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55-123.

# 영문학 연구의 반성경적 전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The Anti-Biblical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and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deology

현 숙 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논문초록

본 논문은 영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이론이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기존의 정전(canon) 중심 연구에서 후기구조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 등의 비판적 이론이 등장하면서 문학 연구는 단순한 미학적 탐구를 넘어 사회적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개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고, 성적 정체성을 사회적 수행의 결과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젠더 수행성이 생물학적 성(sex)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정체성의 유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젠더 개념의 무한한 해체가 전통적 도덕성과 규범성을 약화시키고, 문학 연구가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 미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적 한계와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문학 연구가 미학적 깊이와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젠더 수행성, 주디스 버틀러, 영문학 연구,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모색과 제언\*

## Searching for Lifestyle Medicine from a Christian Worldview

김지원 (Jiwon Kim)\*\*

###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medicine and explores how its Christian values can address issues in the medical field.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often fails to view humans as holistic beings, is influenced excessively by scientism, and faces various challenges such as monopolization, authoritarianism, and medical inequality. Lifestyle medicine approaches human health from a holistic perspective, encouraging active patient participation in their recovery and providing support through collaborative coaching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expert authority. In this respect, lifestyle medicine may be able to address some of the issues present in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Lifestyle medicine possesses biblical characteristics in the following way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hanges in the patient's lifestyle, freely shares the results of medical research, encourages lifestyle medicine experts to step down from positions of authority to work cooperatively and coach patients, and values social relationships. While lifestyle medicine has merit as biblical medicin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its impact on spiritual life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with God. To address these gaps, collaboration between lifestyle medicine experts and pastors is suggested to develop a more holistic approach to lifestyle medicine.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health, holistic health, lifestyle medicine

\* 2025년 2월 11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7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202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보건학부 교수 & 보건복지대학원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18, jiwony@bu.ac.kr

## I.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건강하길 원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셨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볼 때 가장 온전한 건강은 바로 창조 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상태가 될 것이다(김지원, 2018: 141).” 하지만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불완전한 인간의 취약함으로 인해 질병이 시작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을 고쳐야 한다.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결코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의학의 발전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생의학 모델(biomedical model)은 병리학적 인과관계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했다(Grundmann, 2014: 553). 그러나 생의학 모델은 병리적 인과관계만을 고려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질병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신체정신사회 모델(biopsychosocial model)이 제시되었다(이태준, 1993: 1-5). 하지만 신체정신사회 모델도 질병의 영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독교 세계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김지원, 2013: 102-105 ; 이상복, 2006: 35 ; 이윤희·정갑열, 2005: 13 ; Flynn, 2001: 33).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죄로 지적하고 있다(양영미, 2022: 113). 경건주의 신앙은 인간 질병의 근원에 원죄가 있다고 말한다(이은재, 2021: 89). 이는 인간의 원죄로 인류는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죽음과 질병을 가져왔다(김지원, 2018: 143 ; 하태수, 2006: 266).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탐욕은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켰고(김필균, 2020: 54), 이러한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죄를 지닌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다. 왜곡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질병과 건강을 바라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첨단 의료 기술이 인간에게 온전한 건강을 줄 것이라는 환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박중철, 2017: 59 ; 임영채, 2012: 156). 과학주의라는 우상은 ‘흰 가운과 선한 목표라는 의료의 옷을 입고 위장(김민철, 2014: 111)’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룩해놓은 것들을 선하게 이용하여 아픈 자들의 건강 회복에 유익을 주는 것과 함께 이러한 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 과학주의라는 우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강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은 관계의 온전함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김지원, 2013: 97). “성경에서의 ‘건강’ 또는 ‘치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간 실존의 한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의 다차원적이고 통전적인 관계의 온전함을 뜻한다(백성희, 2018: 106).” 이러한 의미에서 온전한 건강은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직장 동료, 교회공동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아끼고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란 삶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고난으로 왜곡되고 훼손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선한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지시받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실천하게 하셨다(Bruckner, 2012: 16). 그러므로 온전한 건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학 기술과 의료진의 도움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의신문, 2024.12.20). 생활습관의학 입문코스(LM 101)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꾀하고 있다(대한생활습관의학원, 2025.3.2). 건강한 생활 습관의 확산을 위해 의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생활습관의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가치를 볼 때 전통적 의학의 관점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습관의학이 성경적 가치를 지닌 의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의료계의 현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계의 현실은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의료계 전반에 걸쳐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

현대의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나친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보지 못하고 인간을 부품화하여 자동차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듯 환자를 바라본다는 것이다(대한감염학회, 2012.11.1). 이러한 원인은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무신론적 진화론과 세속적 인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김민철, 2014: 97-98). 이러한 진화론과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최영종, 2014: 232). 세상적 세계관에 물든 현대의학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인간을 고장 난 기계의 부품을 보듯 다루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계 안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각 개인의 세계관뿐 아니라 각 의료직종과 단체가 어떠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반면에 생활습관의학은 의학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전인적인 접근을 한다(Gray et al., 2020: 169).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은 환자의 전인적 치료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Faries et al., 2025: 324).

### (2) 과학주의라는 이상과 첨단고가 장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성 추구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다양한 유익들이 있다. 그 결과, 과학의 논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과학주의가 의료의 분야에도 깊숙하게 침투했다. “특히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의술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기대를 하며, 건강을 위해서라면 계약서 없이 의술에 특권을 부여한 듯한 인상을 준다. 즉, 의술은 선택하는 전제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의술은 인간에게 질병의 극복과 생명의 연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김민철, 2014: 96-97).”

의학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의료 제공자나 수요자 모두 과학주의라는 이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창조 세계의 질병과 악마화에 대항해야 한다고 가르친다(Wolters & Goheen, 양성만·홍병룡 역, 1985: 125).”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에 근거하여 과학과 의학을 연구하고 활용하되 과학주의라는 이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최진일, 2024: 30).”

병원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각종 고가 장비의 경쟁적 도입은 국민의 의료비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오영호, 2013b: 62), 대형 병원이 환자의 이익보다는 아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로봇 수술을 더 많이 시술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다(송선영·변순용, 2016:

184). 또한 고가 장비로 인한 치료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심지원·변순용, 2020: 164). “첨단 의료 기술이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환자에게 시행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이익이 환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계산해 내지 않고는 복마전과 같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헛되이 낭비되는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김남득, 1993: 81).” 병원 경영진으로서는 병원 운영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최진일, 2024: 6).

생활습관의학은 최첨단 과학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과학주의라는 이상과 병원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를 벗어나도록 돕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 (3) 일부 의료 직종의 독점화와 권위주의

보건의료 분야의 직종들은 다른 어느 분야의 직종보다도 전문성에 의한 독점의 특성을 가진다(유근춘, 2004: 44 ; 김형성, 2013: 163).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의 질적인 수준을 관리하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수와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면이 있다. 정부가 의료인의 독점을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다(정규원, 2024: 283).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거나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의 독점 허용을 권위로 여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주도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의료 기관 확충과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였다(윤보영·안정훈, 2020: 27).” 하지만 2021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정부의 부실한 정책 추진과 밥그릇을 놓칠 수 없다는 집단 이기주의로 무산되었다.

한국 의료계에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정창록, 2014: 211). 이러한 의료의 권위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를 존중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형성, 의료권위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의료진 내부의 인습 타파, 의료 정보 공유를 위한 공정한 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정성모, 2020: 33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별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정보 관리 시스템이나 의료영상 시스템, 진단시스템 등은 발전하였으나 개별의료기관 간 의료 정보의 공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임종우 등, 2014: 128).

한국 사회의 다른 분야와 같이 의료계 역시 자본을 강력한 준거로 삼아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정창록, 2014: 211).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

포크라테스 선서는 사라지고 의료의 본질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목적이 되어야 할 생명과 수단 이어야 할 의술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가치체계 속에서 오늘날의 의료에 만연된 증상들을 보면 중병을 앓고 있음에 틀림없다(김민철, 2014: 33).”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의료의 공급자와 정책자들에게만 국민의 건강을 의지할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다.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는 환자의 권위를 세워주고(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92), 연구한 결과를 의료인들이 독점하지 않고 환자-중심의 의학을 실천하도록 한다(Moore, 2023: 63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의학은 의료분야의 독점과 권위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4) 의료의 불평등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전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오영호, 2013a: 62). 정부와 지자체는 대도시와 종합병원에 의료 인력과 의료 기반이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박유경 등, 2020: 38 ; 문지현, 2022: 39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의 신설로 의사 정원 확대를 꾀하였으나 의견의 차이가 남아 있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의 문제를 정부와 의료 단체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의학을 선도해 나간다면 의료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5)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외에 국민 건강을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

COVID-19 바이러스와 같은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염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한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령자, 장애인, 해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철학을 진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회적 유대의 파괴 사이에서 적합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이문수, 2020, 148).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은 건강행동 문제를 야기하고 사망의 위험인자가 된다(Holt-Lunstad et al., 2015: 227).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이 중요하지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 육체적·정신적인 문제들, 사회적 관계의 훼손 등도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중 생활습관의학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위드 코로나의 길을 가는 유익한 시도가 될 것이다.



COVID-19의 예방에 있어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연구한 결과는 신체활동, 수면, 영양 섭취, 흡연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면역기능을 증진해 감염에 대처하는 기능을 향상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체활동의 증가, 과일과 닭고기 등의 섭취가 COVID-19 감염의 심각성을 개선한다고 보고되었다(Tavakol et al., 2021: 9). 또한 비만과 흡연은 COVID-19 중증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육체적 활동은 중증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i & Hua, 2021: 3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백신접종과 함께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근원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2.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의 생활습관의학

### (1) 생활습관의학의 정의

생활습관의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뿐 아니라 회복시키고,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선-치료(First-line Therapy) 형태로서 자연 건강식, 규칙적 신체활동, 회복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 탄력성, 위험 약물 회피, 긍정적인 사회관계, 그 외 비약물적 생활방식 형태들과 같은 치유적 생활 습관들을 사용하는 근거-기반 의학이다.<sup>1</sup> 생활습관의학은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본다. 생활습관의학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는 건강한 음식 섭취, 수면의 향상, 신체활동의 증가, 스트레스 관리, 중독의 회피, 관계 형성이다(Lippman et al., 2024: 97). 이러한 원칙을 통해 생활습관의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가능한 한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다(Gray et al., 2020: 169).

COVID-19 팬데믹 이후로 일반인의 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면역 보조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시장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Global Market Insights, 2024.10.).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는 면역기능에 중요한 역할과 함께 전반적인 내약성(tolerability)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chienzi & Badowski, 2020: 3). 아연, 셀레늄, 망간 및 구리와 같은 필수 미량 영양소의 항바이러스 및 항산화 특성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다양한 면역조절경로에 관여하여 신체의 방어시스템을 개선한다(Kumar et al., 2021: 1012). 의학자들이 면역기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지만, 인간의 신체와 신체의 방어시스템인 면역

1) 생활습관의학의 정의는 미국 로마린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승현 교수가 하버드 생활습관의학 코스 기반 LM 101 강의에서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Americ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 British Society of Lifestyle Medicine, Kore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 등에서 언급한 생활습관의학 공통 정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무 값없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당시의 온전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 안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면역체계를 만들어 두셨다. 인간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값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병리적 현상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게 하셨다. 특히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 만성적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Gray et al., 2020: 170).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학자들의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 물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의 처방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학 기술과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이성에 의해 진단하고 처방한 의료진들의 결정을 신뢰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인이 제거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습관의학의 연구 결과들은 암,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적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생활 습관의 변화가 효과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첨단의 의학 기술을 이용하여 병인을 제거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신 생명 체계 안에서 일상의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한 입원율과 환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율이 증가하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이고, 대부분의 환자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Garg et al., 2020: 45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등과 함께 기저질환자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COVID-19 상황에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Lange & Nakamura, 2020 ; Li & Hua, 2021 ; Tavakol et al., 2021). 이처럼 생활 습관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2) 생활습관의학의 특징

생활습관의학은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몇몇 대안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 기존의 전통 의학과 차별화된 생활습관의학의 몇 가지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1).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전통 의학, 생활습관의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보건의료모델의 비교<sup>2)</sup>

	전통 의학	생활습관의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보건의료 모델
병인	위험인자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 훼손
치료	위험인자의 치료	질병의 원인으로 생활 습관을 치료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치료에 있어 환자의 위치	치료의 수동적 수용자	치료의 능동적 파트너	관계의 회복을 위한 능동적 참여
치료기간	주로 단기	주로 중장기	전 생애
치료의 책임	대부분 진료자에게 전가	대부분 환자에게 전가됨	전 인류의 공동 책임
약의 사용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	생활 습관의 변화 필요에 따라 부수적 사용	생활 습관의 변화 필요에 따라 부수적 사용
강조점	진단과 처방	동기유발과 순응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목적	질병관리	일차, 이차, 삼차 예방	전인적 건강
생활환경의 고려여부	생활환경 고려하지 않음	환자의 생활환경 고려함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포함
협력 전문가	다른 전문 의사 포함	다양한 건강 관련 전문인 포함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포함
의사-환자의 중심성	의사 중심의 일대일 기준으로 개별적 진료	의사는 환자-중심의 건강 전문팀과 협력하여 코디네이터 역할 및 팀의 구성원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포함
위험성	고위험	저위험	저위험
비용	고비용 (수술, 첨단의학 등)	상대적으로 저비용	저비용
접근방식	개인적 접근 전문가적 접근	협력적인 접근 코칭 접근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포함

첫째, 생활습관의학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을 바라본다.

환자에 대한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방식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소와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약물 치료와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는 처방하고, 환자는 그 처방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47). 이에 반하여 생활습관의학은 환자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본다. 즉 환자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운동, 영양, 사회적 관계, 수면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생활습관의학은 의학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전인

2) 표 1에 있는 전통 의학과 생활습관의학의 비교는 이승현 교수가 하버드 생활습관의학 코스 기반 LM 101 강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보건의료 모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과 실천(김지원, 2013: 100)에 있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적이고 사람 중심적인(holistic and person-centered) 접근을 하는 것이다(Gray et al., 2020: 169).

둘째, 생활습관의학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다.

전통 의학의 치료에서 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치료행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생활습관의학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47). 전통 의학이 개인적, 전문가적 접근을 하지만 생활습관의학은 협력적이며, 코칭적인 접근을 한다. 치료의 책임에서도 전통 의학은 대부분 의료진에게 치료의 책임이 있지만, 생활습관의학은 그 책임이 대부분 환자에게 전가되며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을 요구한다(표 1).

셋째,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이 권위가 아닌 협력적 코칭적 접근으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

생활습관의학은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의사나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적이고 코칭적으로 접근하여 환자-중심의 의학을 실천하도록 한다(Moore, 2023: 637). 이러한 점은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독점화와 권위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혁신적인 의학이다. 생활습관의학은 저위험, 저비용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적용이 가능하다.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개개인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 (3)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특성

표 1에서 살펴본 전통 의학과 생활습관의학의 차이와 더불어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보건의료 모델에 대한 설명에서 김지원(2013: 102-105)은 질병의 원인을 원죄로 인한 관계의 훼손으로 설명하면서 보건의료인들이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진정한 건강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습관의학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만성질환의 병인으로 보고,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개인의 나태, 약물중독, 탐식, 과욕, 사회적 관계의 결핍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나 자신과의 관계’의 왜곡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은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하나님 형상의 훼손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 의와 거룩, 지적 능력, 자연적인 감정, 도덕적 자유 등은 죄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Berkhof, 이상원·권수경 역, 2020: 437-439). 하나님 형상의 손상과

왜곡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의 훼손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따르던 습성을 버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생활습관의학이 제시하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한 건강의 회복은 나태, 탐식, 약물중독과 같이 타락하고 왜곡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권위가 아닌 협력적 코칭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습관의학이 삶의 변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의롭다는 ‘칭의’를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간다(Williamson, 유태화 역, 2006: 162-163).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함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생활습관의학은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나태, 탐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사막 교부들로부터 천 년 이상 전해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지침에 해당하는 7대 죄에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있다(신원하, 2020: 9-11). 사막 교부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러한 지침들은 모두 삶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생활습관의학의 6대 중요 요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활습관의학의 6개 요소 중 신체활동의 증가, 건강한 음식의 섭취, 스트레스의 조절, 약물중독, 수면의 향상은 육체적인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사회적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Frates et al., 이승현 외 역, 2021: 19). 이는 각각 보건의료 분야의 기독교 세계관 모델에서 제시한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정신적, 영적인 문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개인의 몸과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다(고전 3:16-17). 흔히, ‘거룩’을 ‘구별’이라고 한다(김래용, 2016 :45).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문제이며, 죄성으로 타락하고 왜곡된 생활 습관을 변화하여 옳김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의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활습관의학의 연구 결과들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영생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듯이 생활습관의학의 연구 결과들은 일반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생활 습관적 접근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다(Herman et al., 2005: 332 ; Li et al., 2010: 1872).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체계, 건강의 체계를 연구하고, 환자와 일반인이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다.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최첨단 의학은 고비용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생활습관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에 값을 매길 수 없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복음이 주어지듯, 생활습관의학의 연구 결과는 값을 매길 수 없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며 생활 습관의 개선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생활습관의학의 연구 결과들이 값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하여지고 이를 통해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이다.

셋째,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환자 중심으로 협력하고 지도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전통 의학적 접근이 만성질환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환자의 코칭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생활습관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Conn & Curtain, 2019: 677). 기존의 전통적 의학접근이 전문가의 권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거나 교육하였다면,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는 환자의 권위를 세워준다(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92).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는 코치와 같은 협력적 접근으로 환자의 권위를 세워주어 환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건강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높은 자리에서 권위와 지시를 하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협력하고 지도한다는 점에서 생활습관의학은 성경적인 의학이 된다.

넷째, 생활습관의학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생활습관의학의 핵심 요소로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Proctor et al., 2023:1) 관계 회복의 전제 없는 전인 건강 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조무성, 1997: 67).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Crabb,

김명희 역, 2013: 18). 생활습관의학이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적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면역계, 내분비계 및 심혈관계의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Frutes et al., 이승현 역, 2022: 298), 좋은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Rippe, 2024: 456). 자연식품(whole food)으로 식습관을 전환하는 것이 인간뿐 아니라 지구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Lippman et al., 2024: 98)은 생활습관의학이 훼손된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 (4)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는 타락하고 훼손된 의학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는 전통 의학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 세계관에 몰두하여 있는 전통 의학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남겨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으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료진들이 있다. 전통 의학이 가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들이 기존의 의학에도 긍정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생활습관의학도 성경적인 의학이 가지고 있어야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학으로서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습관의학이 영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생활습관의학이 추구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는 주로 신체활동 증가, 건강한 음식의 섭취, 약물중독의 회피, 수면 향상 등과 같은 신체적 삶의 습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정신적 습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삶의 변화이다. 이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변화와 함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영적인 삶의 변화이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상호작용을 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영적인 면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Vader, 2006, 457).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은 종교와 영성이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환자의 전인적 치료에 통합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Faries et al., 2025: 323).



생활습관의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sup>3</sup>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거나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한다면 성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변화와 함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전인 건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이 협력적인 접근을 한다면 목회자들의 목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생활습관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한 식사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건강 음식에 대한 집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생활습관의학은 식물 기반 음식과 자연식품(whole food)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WFPB (Whole-Food Plant Based) 생활 습관 프로그램이 비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Jakše et al., 2020: 9), 이외에도 건강한 음식이 당뇨, 심혈관질환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가능한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나친 건강 음식에 대한 집착과 강박은 건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한다. 이는 먹고 마시는 것에 무관심해지라는 교훈이 아니라, 지나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더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실제의 삶에 있어서 매번 건강식을 먹을 수도 없고,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교제하거나 선교지에 나갔을 때 건강식만을 고집할 수 없다. 생활습관의학이 제시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주어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건강 식생활을 위한 지침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러한 건강 식생활 기준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한다(딤후4:4).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건강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최현일, 2012: 19).

셋째,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생활습관의학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이 건강에 주는 유익과 함께 사회적 관계가 저조한 경

3) 대한 생활습관의학 교육원에서는 하버드 코스 기반 생활습관의학 입문 코스(Havard Course-based LM101) 과정을 개설하여 의학/건강 관련 제공자나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 종사자, 환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http://lifestylemedicinekorea.org/sub/HarvardCourseLM101.php>).



우 치매와 심장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Lippman et al., 2024: 103). 성경이 말하는 건강은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김지원, 2013: 102-105). 생활습관의학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며 이웃과의 관계와 정신건강을 통해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과 교회 목회자들의 협력을 통해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목회자가 교회의 목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성도들이 전인 건강에 이르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단지 양적인 관계 형성이 아니라 기도, 사랑, 섬김, 양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높은 질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III.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 의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독교적 가치를 제시하고, 생활습관의학이 보다 나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습관의학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을 바라보는 특징을 갖는다.

생활습관의학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운동, 영양, 중독, 수면 및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전인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holistic and person-centered) 접근을 한다(Gray et al., 2020: 169).

둘째, 생활습관의학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특징을 갖는다.

전통 의학은 의료진의 책임 있는 치료에 환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생활습관의학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47).

셋째,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는 권위가 아닌 협력적 코칭적 접근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갖는다.

생활습관의학은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의료인들이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 협력적이고 코칭적으로 접근하여 환자-중심의 의학을 실천하도록 한다(Moore, 2023: 637).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습관의학이 삶의 변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생활습관의학은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문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막 교부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7대 죄악(신원하, 2020: 9-11)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죄성으로 타락하고 왜곡된 생활 습관을 변화하여 거룩한 구별의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활습관의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생활습관의학의 연구 결과들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듯 의학자들의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일반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환자와 일반인의 건강 회복가 증진을 돕는다는 면에서 생활습관의학은 성경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협력하고 코칭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전통적 의학접근이 전문가의 권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였다면,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는 환자의 권위를 세워준다(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92). 환자의 권위를 세워주어 환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건강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다.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서 환자와 협력하고 코치한다는 점에서 생활습관의학은 성경적인 의학이 될 수 있다.

넷째, 생활습관의학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면역계, 내분비계 및 심혈관계의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Frates et al., 이승현 역, 2022: 298), 좋은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Rippe, 2024: 456).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생활습관의학이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경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의학은 기존의 의학보다 성경적인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건강의 정의와 요소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두를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인과 가정의 건강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건강함이라고 생각한다(최현일, 2012: 19).”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생활습관의학이 보다 나은 성경적 가치를 지닌 의학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생활습관의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활동, 건강한 음식 섭취, 약물중독, 수면,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에 추가로 영적인 삶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변화와 함께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되 건강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강박적 태도가 아닌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은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김지원, 2013: 102-105). 생활습관의학이 음식에 대한 탐욕과 나태로 인한 신체활동의 부족,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중독 등과 같이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회복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적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회 현장에 적용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한다면 생활습관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왜곡된 의료분야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 건강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활습관의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한계를 논한 본 연구가 세상적 세계관에 물든 보건의료 분야가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남득 (1993). 첨단과학과 테크노피아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최근 첨단 의학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통합연구**, 6(3), 53-84.
- 김래용 (2016). 이사야 1-12 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22(2), 38-65.
- 김명희 역 (2013).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Crabb, L. (1999). *Becoming a Truth Spritual Community*.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김민철 (2014).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의학과 의료**, 서울: 도서출판 아바.
- 김지원 (2013).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과 실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18(4), 93-114.
- 김지원 (2018).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보건의료, 관계 회복. 장종현 (편저). **전인건강, 관계회복에서 시작된다**(pp. 137-147). 천안: 도서출판 백향.
- 김필균 (2020). 환경 청지기의 돌봄과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49, 45-80.
- 김형성 (2013). 의료상업화 문제에 대한 의료전문주의의 한계와 대안. **사회과학연구**, 31, 145-164.
- 문지현 (2022). 서남권 의료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3), 385-392.
- 박유경·김진환·김선·김창엽·한주성·김새롬. (2020).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미충족 의료지표 활용의 비판적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30(1), 37-49.
- 박중철. (2017). 죽음을 대하는 현대의학의 태도 비판. **의철학연구**, 24, 39-76.
- 백성희 (2018). 성경에서 본 치유, 관계 회복. 장종현 (편저). **전인건강, 관계회복에서 시작된다**(pp. 105-111). 천안: 도서출판 백향.
- 송선영·변순용 (2016). 수술 로봇의 윤리적 쟁점. **윤리연구**, 106, 183-202.
- 신원하 (2020).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심지원·변순용 (2020). 로봇 없는 로봇수술센터: 수술로봇의 윤리적 쟁점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倫理研究**, 129, 155-167.
- 양성만·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 M. & Goheen, M. W. (1985). *Creation Regained*.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오영호 (2013a).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0, 62-82.
- 오영호 (2013b).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2, 62-73.
- 유근춘 (2004). 현대 서구 의료시스템의 분화방식에 따른 의사의 독점적 지위와 행위의 준거틀 -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에 주는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24(1), 31-52.

- 이문수 (2020). Covid-19와 면역에 대한 행정 철학적 고찰. **행정총론**, 58(3), 125-151.
- 이상복 (2006).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독교 전인치유 모델에 관한 탐색. **성경과 상담**, 6, 24-48.
- 이상원·권수경 역 (2020). **별코프 조직신학**. Berkhof, L. (1995). *Systematic Theology*. 파주: CH북스.
- 이승현 역 (2022). **생활습관의학 핸드북: 건강습관의 파워에 관한 개론**. Frates, B., Bonnet, J. P., Joseph, R. & Peterson, J. A. (2020). *The Lifestyle Medicine Handbook: An Introduction to the Power of Healthy Habits*. 서울: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
- 이승현·김귀숙·이의철·최재희·박민숙·호자현 역 (2021). **청소년 생활습관의학 안내서: 건강한 삶의 파워**. Frates B. (2020). *The Teen Lifestyle Medicine Handbook: The Power of Healthy Living*. 서울: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
- 이은재 (2021). 질병과 치유: 경건주의의 신학적 질문. **신학과 세계**, 100, 83-100.
- 이용환·정갑열 (2005). **聖經 속의 健康散策**.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 이태준 (1993). 생의학(Biomedicine)의 의사학적 고찰과 이 의학모델의 한계성 및 문제점. **의사학**, 2(1), 1-9.
- 임종우 (2014). 환자 의료 정보 공유 및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모그래픽 데이터 활용 연구. **전자공학회 논문지**, 51(10), 128-136.
- 임영채 (2012). 현대의학의 ‘개별 맞춤 의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철학연구**, 13, 135-162.
- 양영미 (2022). 성경에 나타난 질병과 치유. 장종현 (편저) **전인 간호, 소명에 응답하다** (pp. 110-127). 천안: 도서출판 류리.
- 유태화 역 (2006).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강해: 신앙교육서**. Williamson, G. I. (1970).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or Study Classes*.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 윤보영·안정훈 (2020).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 **보건의료기술평가**, 8(1), 26-32.
- 정규원 (2024). 의료면허제도의 기원과 목적. **강원법학**, 74, 283-324.
- 정성모 (2020). 의료서비스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한 의료권위주의 해소를 위한 시사점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9), 333-340.
- 정창록 (2014). 한국 의료계의 권위주의적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생명의료윤리교육 1: 에리히 프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7(2), 187-213.
- 조무성 (1997). 의료 전문화와 전인건강 문화: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신앙과학문**, 2(4), 49-81.
- 최진일 (2024). 김수환 추기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톨릭 의료윤리. **인격주의 생명윤리**, 14(1), 3-33.
- 최영종 (2014). 다윈 시대 이후 인간의 존엄성: 인류 진화기의 가톨릭 정체성: 인류 진화기의 가톨릭 정체성. **인간연구**, (26), 229-245.
- 최현일 (2012). 전인적 가정건강. **월드뷰**, 25(11), 16-19.

- 하태수 (2006). 원죄교의에 관한 고찰-트리엔트 공의회 정의를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8, 263-278.
- Bruckner, J. K. (2012). *Healthy Human Life: A Biblical Witness*. Oregon: Cascade Books.
- Conn, S. & Curtain, S. (2019). Health Coaching as a Lifestyle Medicine Process in Primary Care. *Aust J Gen Pract*, 48(10), 677-680.
- Faries, M. D., Corrêa Fernandes, C., Phillips, E., West, T. & Stout, R. (2025).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Lifestyle Medicine. *Am J Lifestyle Med*, 19(2), 324-333.
- Flynn, L. A. (2001). Christian Model of Health Promotion. *J Christ Nurs*. 18(1), 31-33.
- Garg, S., Kim, L., Whitaker, M., O'Halloran, A., Cummings, C., Holstein, R., Prill, M., Chai, S. J., Kirtley, P. D., Alden, N. B., Kawasaki, B., Yousey-Hindes, K., Niccolai, L., Anderson E. J., Openo, K. P., Weigel, A., Monroe, M. L., Ryan, P., Henderson, J., Kim, S., Como-Sabetti, K., Lynfield, R., Sosin, D., Torres, S., Muse, A., Bennett, N. M., Billing, L., Sutton, M., West, N., Schaffner, W., Talbot, H. K., Aquino, C., George, A., Budd, A., Brammer, L., Langley, G., Hall, A. J. & Fry, A. (2020). Hospitalization rates an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Laboratory-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_NET, 14 State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9(15), 459-464.
- Gray, I. D., Kross, A. R., Renfrew, M. E. & Wood, P. (2020). Precision Medicine in Lifestyle Medicine: The Way of the Future? Analytic Review. *Am J Lifestyle Med*, 14(2), 169-186.
- Grundmann, C. H. (2014). To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Health and Well-Being in Biblical Perspective. *J Relig Health*. 53(2), 552-61.
- Herman, W. H., Hoerger, T. J., Brandle, M., Hicks, K., Sorensen, S., Zhang, P., Hamman, R. F., Ackermann, R. T., Engelgau, M. M. & Ratner, R. E. (2005). Diabetes Prevention Program Research Group: The Cost-Effectiveness of Lifestyle Modification or Metformin in Preventing Type 2 Diabetes in Adults with Impaired Glucose Tolerance. *Ann Intern Med*, 142(5), 323-332.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J Persp Psycho resp*, 10(2), 227-237.
- Jakše, B., Jakše, B., Pinter, S., Pajek, J. & Fidler, M. N. (2020). Whole-Food Plant-Based Lifestyle Program and Decreased Obesity. *Am J Lifestyle Med*, 16(3), 260-270.
- Kumar, P., Kumar, M., Bedi, O., Gupta, M., Kumar, S., Jaiswal, G., Rahi, V., Yedke, N.G., Bijalwan, A., Sharma, S. & Jamwal, S. (2021).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as immunity boosters in COVID-19. *Inflammopharmacology*, 29(4), 1001-1016.
- Lange, K. W. & Nakamura Y. (2020). Lifestyle Factors in the Prevention of COVID-19. *Global Health Journal*, 4(4), 146-152.



- Li, R., Zhang, P., Barker, L. E., Chowdhury, F. M. & Zhang, X. (2010). Cost-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Prevent and Control Diabetes Mellitus: A Systematic Review. *Diabetes Care*, 33(8), 1872-1894.
- Li, S. & Hua, X. (2021). Modifiable Lifestyle Factors and Severe COVID-19 Risk: a Mendelian Randomisation Study. *BMC Med Genomics*, 14(1), 38-45.
- Lippman, D., Stump, M., Veazey, E., Guimarães, S. T., Rosenfeld, R., Kelly, J. H., Ornish, D. & Katz, D. L. (2024). Foundations of Lifestyle Medicine and its Evolution. *Mayo Clin Proc Innov Qual Outcomes*, 8(1), 97-111.
- Michienzi, S. M. & Badowski, M. E. (2020) Can Vitamins and/or Supplements Provide Hope against Coronavirus? *Drugs in Context*, 9, 1-29.
- Moore, M. (2023). Ground Zero in Lifestyle Medicine: Changing Mindsets to Change Behavior. *Am J Lifestyle Med*, 17(5), 632-638.
- Proctor, A. S., Barth, A. & Holt-Lunstad, J. (2023). A Healthy Lifestyle is a Social Lifestyle: The Vital Link between Social Connection and Health Outcomes. *Lifestyle Med*, 4(e91), 1-11.
- Rippe, J. (2024). Loneliness and Lifestyle Medicine. *Am J Lifestyle Med*, 18(4), 456-458.
- Tavakol, Z., Ghannadi, S., Tabesh, M. R., Halabchi, F., Noormohammadpour, P., Akbarpour, S., Alizadeh, Z., Nezhad, M. H. & Reyhan, S. K. (2021).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Healthy Lifestyle and COVID-19 Disease Severity; A Cross-Sectional Study. *J Public Health (Berl.)*, 1-9.
- Vader, J. P. (2006). Spiritual health: the Next Frontier,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5), 457.
- 대한감염학회 2012. 11. 2일자. “특강(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 의학과 진화생물학의 통섭: 다윈과 히프크라테스의 만남” [https://www.ksid.or.kr/scientific/2012\\_fall/2012f\\_14.pdf](https://www.ksid.or.kr/scientific/2012_fall/2012f_14.pdf) (검색일 2025.3.2)
- 대한생활습관의학원. “하버드기반 생활습관의학 입문코스(LM101)” [https://www.lifestylemedicinekorea.org/courses-3/하버드기반-생활습관의학-입문코스\(lm101\)](https://www.lifestylemedicinekorea.org/courses-3/하버드기반-생활습관의학-입문코스(lm101)) (검색일 2025.3.2)
- 한의학신문 2024. 12. 20일자. “건강한 생활습관, 올바른 인식과 교육 필요”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887](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887)(검색일2025.3.5.)
- Global Market Insights 2024.10월. “Immune Health Supplements Market-By Product Type, By Formulation, By Source Type, By Mode of Medication, By Distribution Channel- Global Forecast, 2024-2032”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immune-health-supplements-market> (검색일 2025.3.2)



#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모색과 제언

## Searching for Lifestyle Medicine from a Christian Worldview

김 지 원 (백석대학교)

### 논문초록

본 논문은 생활습관의학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 생활습관의학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 의료계는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학주의라는 우상에 빠져있으며, 독점화와 권위주의, 의료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활습관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을 바라보고,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고, 전문가의 권위가 아닌 협력적 코칭을 통해 돕는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면에서 생활습관의학이 한국 의료계가 갖고 있는 몇몇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습관의학은 환자의 삶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의학 연구의 결과들이 값없이 주어지며,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환자 중심으로 협력하고 코칭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생활습관의학이 성경적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영적인 삶의 변화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습관의학 전문가들과 목회자가 협력한다면 전인적인 생활습관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건강, 기독교 세계관, 생활습관의학, 전인건강

# 사람돌봄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 A Christian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Caring Theory

김희영 (Heeyoung Kim)\*\*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terpersonal Caring Theory (ICT)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presented its implications as a practical framework for Christian nursing. Interpersonal Caring is defined as therapeutic care behaviors based on compassion, and since it is grounded in God's love, it can be recognized as a care theory for the practice of Christian nursing. The basis for the five assumptions of ICT can be found in the Bible, and its characteristics are consistent with biblical teaching on care. The ten components of ICT, which are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listening, companioning, complimenting, comforting, hoping, forgiving, and accepting, are closely related to the care of God, the care of Jesus Christ, and the care of the saints in the Bible. Therefore, ICT can be a guide for Christian nurses to practice nursing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To fully understand each component of ICT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Christian nurses need to deeply meditate on relevant scriptures and be trained to apply these principles in practice.

**Key words:** Interpersonal Caring Theory, nursing, Christian

\* 2025년 2월 11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15일 게재확정

\*\* 동신대학교(Dongshin University) 간호학과 교수,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34-26, 301C kimhy@dsu.ac.kr

## I. 서론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은 1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예병일 외, 2022: 201-202).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는 켈커타의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을 위해 쉼 곳을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려는 열망과 헌신으로 간호를 시작하였다(여민정, 2016: 19).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인 간호도 소명을 가진 서양 선교 간호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2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간호선교사들은 선교부에서 설립한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간호를 시작하고 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질병예방 활동과 보건간호사업을 실시하였다(한미영·손수경, 2014: 241-243). 간호선교사들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 땅의 여성과 어린이를 섬기는 소명을 다하였다(한미영·손수경, 2014: 242). 이처럼 초기 간호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소명의 의미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현대 간호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간호의 지식체 구축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격히 확산되었다. 간호학자들은 간호의 본질을 질병에 대한 의학적 관점에서 분리하고, 간호이론과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여 간호대상자와 실무를 질병자체가 아닌,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중점을 두는 간호학적 시각으로 변화시켰다(이원희 외, 2011: 6). 간호는 과학적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수용하며 다양한 철학적 패러다임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발전하였다. 최근 간호이론의 개발은 간호중재가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생행동적(bio-behavioral) 관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생리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관점, 대상자의 경험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차이를 인식하려는 해석학적 비평, 그리고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가치, 명확한 구조나 규범을 부정하고 상대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현상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이원희 외, 2011: 8-9). 그러나 간호지식의 영역이 다원적인 방향으로 진보하였더라도 간호학의 관심은 여전히 역동적인 생의 과정에 있는 인간의 총체성(holism)에 있다(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25).

간호사는 매일 삶과 죽음, 출생과 질병, 고통을 경험한다. 대상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움직일 수 없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에 살아야 하는 건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간호상황속에서 간호사의 삶과 고통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수많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스

럽게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간호지식 뿐만 아니라, 인간이해와 돌봄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간호의 본질로 형성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모든 진리나 가치가 상대적이며, 다양한 관점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특징이다(신국원, 2006: 170). 포스터모더니즘의 간호는 기계론적, 자연과학적 접근법 외에도 샤머니즘, 토속 종교, 물리학과 동양 철학 등 다양한 원천들을 수용하며, 각 환자의 상황, 문화적 배경, 가치관이 간호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이원희 외, 2002: 25-30).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간호이론은 더 이상 하나의 이론적 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기반은 개별 간호사의 철학과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가 가지는 철학과 간호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간호는 사회적 요구와 전문성에 의하여 치료철학과 돌봄철학의 두 중심 초점을 갖는다(이원희 외, 2011: 158). 치료철학은 건강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간호실무를 통해 수행되며, 돌봄철학은 인간 존엄과 자율성의 윤리적 가치 및 대상자 옹호의 형태로 실천된다(이원희 외, 2011: 158). 과학적 간호실무는 근거를 기반으로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게 교육될 수 있지만, 돌봄의 철학은 각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윤리적 기준이 제시된다. 현행 교육체계는 특정 종교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간호사로서의 돌봄철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독교간호사로서 명확한 돌봄철학을 정립하고 간호실무에서 돌봄이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호와 신앙을 통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Shelly와 Miller (1999)는 성경을 통해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개념을 설명하며 기독교간호이론을 제시하였다(이원희 외, 2002: 51-57). 기독교간호이론은 기독교간호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간호이론은 간호이론의 수준에서 볼 때 추상성이 높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므로 기독교간호사로서 실무에서 기독교간호를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검증가능한 수준의 이론도 필요하다.

사람돌봄이론은 국내 간호학자 김수지에 의해 개발된 간호이론이다(Kim, 2012). 사람돌봄이론은 긍휼<sup>1</sup>(compassion)에 기반으로 한 치료적 돌봄 행동으로 정의되며(Kim, 2012: 31), 이는 Shelly & Miller (1999)가 성경적 간호를 ‘전인에 대한 긍휼의 사역(A ministry of compassionate care for the whole person)’이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이원희 외, 2002: 56). 사람돌봄이론은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되었고(Kim, 2012: 71-78),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Kim & Kim, 2007a: 15), 유사실험연구를 통해 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Kim

1) 이광자 외(2017)는 Kim (2012)의 ‘compassion’을 연민으로 번역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휼로 번역함

& Kim, 2007b: 190-195). 사람돌봄이론의 10가지 요소는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행동용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 간호연구 분석에 따르면, 사람돌봄이론은 환자, 취약계층,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되어 수용가능성과 일반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김희영, 2020: 125).

간호이론과 철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간호이론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으로 간호실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은 간호철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람돌봄이론이 기독교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부합되는지, 이론의 각 요소들이 성경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지, 기독교적 돌봄으로서 간호실무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사람돌봄이론의 각 요소가 기독교 관점의 이론으로 수용가능하다면 성경말씀을 통해 각 요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높여 이를 실무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돌봄이론의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기독교 관점에서 이론의 정의, 가설,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관점에서 사람돌봄이론의 요소를 탐색하고 돌봄 실천을 위한 적용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사람돌봄이론의 개발과정

사람돌봄이론을 개발한 김수지(1942-2016)는 2001년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및 나이팅게일 국제재단(Florence Nightingale International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국제간호대상(International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이광자 외, 2017: 2). 국제간호대상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념하여 전 세계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이룬 간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간호계의 노벨상이다. 김수지는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면서 개발하게 된 ‘사람돌봄이론’을 세계에 알려 공헌도를 인정받았다(이광자 외, 2017: 2). 또한 김수지는 세계적십자사로부터 나이팅게일기장을, 범석봉사상 및 한국여성지도자대상을 수상하였다(이광자 외, 2017: 2). 탁월한 간호이론가로서 김수지가 개발한 사람돌봄이론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호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김수지, 2010).

김수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총에 맞아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밤새 간호해 살려 낸 간호사를 보며 감동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될 것을 꿈꾸었다(김수지, 2010: 54-56). 이화여대에서 간호

학을 배우며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며 병든 자를 간호하며 살리라 결심하였다. 김수지는 이화여대 정신간호학 석사과정과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자신이 받은 교육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믿었다. 김수지는 1978년 한국 간호학 박사 1호가 되었고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가르치며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돌봄이론을 개발하였다. 서울 사이버대학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에서 학장으로 4년을 섬기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이광자 외, 2017: 2). 김수지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셨고, 주님이 자신을 돌보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고자 하였다. 김수지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김수지, 2010: 222). 김수지의 돌봄에 대한 철학이 사람돌봄이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김수지의 사람돌봄이론 개발은 1982년 8월, 갑자기 연구실을 찾아온 정신과 환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김수지, 2010: 52-56 ; 이광자 외, 2017: 11). 이 환자는 3개월 정도의 상담을 마친 후 다른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데려왔고, 이후 13명의 자조모임이 결성되었다. 김수지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경청함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9년, 김수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생생한 경험을 Glaser & Strauss의 근거이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1990년과 1992년에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체험에 대한 반복연구를 진행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Kim, 2012: 59-70).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체험은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과 희망이 결여되어 있었다(Kim, 2012: 59-70).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희망이 생기면 참여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부 도움에 협조적이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Kim, 2012: 68). 정신질환자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김수지는 어려운 삶의 상황을 극복하고 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돌봄에 대하여 더욱 탐색하게 되었다. 사람돌봄이론의 정련화는 1993년과 1994년에 만성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돌봄 경험을 분석하고 돌봄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Kim, 2012: 71-78). 50명의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돌봄 경험은 189개의 단어와 구로 표현되었으며, 이 자료들을 내용분석하여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반복연구를 통해 2개의 범주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0개의 범주가 확립되었다(Kim, 2012: 71-78). 10개의 범주 요소는 알아봐 줌, 동참함, 공유함, 경청함, 동행함, 칭찬함, 안위 제공함, 희망 불어넣음, 용서함, 수용함이며,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도 검증되었다(Kim, 2012: 71-78 ; Kim & Kim, 2007a). 사람돌봄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기반 재활간호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사실험 사전사후설계로 사람돌봄기술 적용, 비적용 집단과 대조군으로 진행



하였고 자가간호, 대인관계, 사회적 기능의 변수들을 사전, 6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에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가족의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입원 횟수와 입원 기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Kim, 2002: 79-94; Kim & Kim, 2007b).

이와 같은 개발과정을 통해 사람돌봄이론이 여러 차례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돌봄에 대한 경험과 상황이 깊이 있게 탐구되어 이론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양적 연구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초기에 김수지를 찾아온 만성정신질환자 그룹이 지속적으로 연구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지원은 당시 한국의 지역사회 상황, 연구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돌봄이론은 대상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돌봄을 바탕으로 분석되고 도출되었기 때문에 실무에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이론이다. 또한 국내 대상자들의 체험을 통해 돌봄의 사건, 행동, 말, 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분석되었기 한국의 문화권에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2. 기독교 관점에서 본 사람돌봄이론의 정의

사람돌봄은 공홀에 기반을 둔 치료적 돌봄 행동 및 활동으로서, 간호사(돌봄 제공자)와 환자(돌봄 수혜자) 사이에서 발전된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된다(Kim, 2012: 31). 사람돌봄을 통해 대상자는 자아가치감을 회복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게 됨으로써 최적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처방된 다양한 치료에 순응하게 된다(Kim, 2012: 31).

김수지는 진정한 사람돌봄이 간호제공자의 공홀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Kim, 2012: 34). 성경은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마태복음 5: 7)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홀의 헬라어는 '엘레오스(eleos)'로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다(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985). 또한 공홀을 의미하는 'compassion'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라틴어 'cum-pati'에서 유래하였으며, 함께 고통 받고 타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돌봄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신뢰와 희망을 전달한다(Kim, 2012: 34).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공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지는 사람돌봄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 기초하며 간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임을 밝히고 있다(Kim, 2012: 34). 사람돌봄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고 대상자의 자존감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함으로써 간호사의 삶의 실현하며 간호사의 자존감도 확립시켜 준다(Kim,



2012: 34). 사람돌봄의 정의를 살펴볼 때 Shelly와 Miller (1999)가 정의한 기독교간호 “간호는 전인에 대한 동정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목적은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적의 건강(샬롬)을 가져 주는 것이다(이원희 외, 2002: 56)”와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3. 기독교 관점에서 본 사람돌봄이론의 가정

사람돌봄이론의 가정은 5가지로 인간, 개인, 건강, 환경, 간호사-대상자 관계에 대하여 제시된다. 각 가정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간은 사람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생활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다(마태복음 22: 37-39). 사랑의 계명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갈라디아서 6: 2), 즉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은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요한일서 4: 1).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므로 자아실현의 여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사람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며 자아를 실현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2) 개인은 생물학적-정신/정서적-사회적-영적 필요를 지닌 역동적 인간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물학적 필요를 가진 존재임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마태복음 6: 31-32).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려주시며(잠언 4: 23),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정신/정서적 존재로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시편 34: 18).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으므로(창세기 2: 18), 공동체 내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히브리서 10: 24-25). 또한 인간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다(마태복음 4: 4). 예수님은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수가 되어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신다(요한복음 4: 13-14).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생물학적, 정신·정서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지닌 존재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건강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지식과 힘, 의지, 사랑 같은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지식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잠언 3: 7-8).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삶의 도전들을 이겨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이사야 40: 31).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빌립보서 4: 13)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가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빼를 마르게 하므로(잠언 17: 22) 긍정적인 마음과 기쁨이 건강에 중요함을 알려 주신다. 따라서 성경은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지식과 힘, 의지, 사랑 같은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4) 환경은 내적이고 외적인 자원이며,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창조하시고(창세기 1: 3), 사회적 환경(로마서 13: 1)을 정하셨으며,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환경을 지키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창세기 1: 31; 2: 15). 또한 성경은 내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며(마태복음 5: 8).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신다(빌립보서 4: 7). 심리학자 Carl Rogers는 환경을 ‘에너지 장’ 즉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을 경험하는 총체적 맥락으로 보았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마치 에너지가 흐르는 것처럼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환경을 에너지 장으로 보는 관점은 인간중심 접근법이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양자물리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라도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음파와 진동이며, 말을 할 때 파동은 공기를 통해 이동하여 상대방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진동을 전달하는 에너지 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에너지 장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전제 하에 내적인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영적 자원과 외적인 물리적, 자연적, 사회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5) 모든 간호사-환자의 관계는 개인적 자질 뿐 아니라 돌봄의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인적 상황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규례에 따라 한센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검사하는 역할(레위기 13: 2-3)과 질병이 치료된 후 정결의식을 통해 회복을 확인하는 역할(레위기 14: 2)을 담당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마태복음 9: 12) 간호사-환자의 관계는 질

병의 치유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맺어진 관계이다. 의료기술과 지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 약물, 의료기기 등도 계속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간호사-환자 관계에서 돌봄의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상황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4. 기독교 관점에서 본 사람돌봄이론의 특성

사람돌봄의 특성은 7가지로 제시되고 있다(Kim, 2012: 36-37; Kim & Kim, 2007a: 15-16). 이 특성들을 기독교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람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개인 대 개인 간 상호작용이다.

사람돌봄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돌봄은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자아가치감과 자아존중감이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에게 병이 벌써 오래 되었음을 아시면서도 ‘네가 낮고 자 하느냐’고 질문하셨다(요한복음 5: 6). 또한 예수님은 맹인 바디매오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마가복음 10: 51)고 질문하셨다. 예수님은 대상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셨지만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상태, 믿음과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경력이 많은 간호사는 환자들을 보지만 해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의 치료 과정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각 개인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돌보는 과정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2) 높은 수준의 사람돌봄은 신뢰와 희망을 전달하며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되며 긍휼(compassion)에 기반을 둔다.

긍휼(compassion)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다. 또는 공감을 바라는 심정에서 나온 선행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는 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돌봄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신뢰를 전달한다(요한일서 4: 18). 대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마태복음 11: 28-29).

**(3) 사람돌봄은 장소, 시간, 신체 접촉으로 제한되거나 구속받지 않는다.**

사람돌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돌봄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은 하늘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시편 139:7-10),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람돌봄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다. 간호사는 퇴원하는 대상자가 가정에서 자기돌봄과 투약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돌봄을 지속할 수 있다. 희망을 붙여넣은 간호중재는 대상자가 어디에 있든지 고통을 견디며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사람돌봄은 총체적 접근으로서 그 과정은 개인의 전체성, 통합성, 연결성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돌봄도 총체적 접근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며(시편 103: 2-3),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해하시고 쉼과 회복을 주신다(마태복음 11: 28).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며(마태복음 6: 25-26), 상한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신다(시편 34: 18; 고린도후서 1: 3-4).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며 서로의 짐을 나누며 돌보라고 명하신다(갈라디아서 6: 2). 사람돌봄은 질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한 대상자의 환경과 정신적, 영적, 정서적 고통까지 포함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사람돌봄은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통해 표현되며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다.**

사람돌봄은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통해 표현된다. 이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며(요한일서 3: 18),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빌립보서 2: 3-4). 대상자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전해야 하며(에베소서 4: 25),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해야 한다(야고보서 1: 19). 사람돌봄은 대상자가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돌봄을 전달할 수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소통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6) 사람돌봄은 대상자가 자아존중감 확립의 기초가 되는 자아가치감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유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창세기 1: 27, 시편 139: 13-14).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으며(마태복음 10: 29-31),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예레미야 29: 11). 하나님은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

고, 독생자를 보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이사야 43: 4; 요한복음 3: 16). 사람돌봄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람의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대상자가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7) 효과적인 사람돌봄은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민감한 간호를 포함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다(마태복음 28: 19-20). 초대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맞는 신앙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사도행전 15: 19-20). 바울은 자유로웠으나 복음전파를 위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추려 노력했다(고린도전서 9: 19-23). 음식에 대해서도 각자의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로마서 14: 1-3). 사람돌봄은 각 사람의 문화적 관습이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 5. 기독교 관점에서 본 사람돌봄이론의 요소

사람돌봄이론의 10가지 요소는 대상자의 표현을 근거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소의 정의와 행동 및 활동, 의미 있는 말과 느낌, 상황적 맥락이 제시되었다(Kim, 2012). 본 장에서는 각 요소에 대한 기독교 관점을 탐색해 봄으로써 기독교간호 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알아봐 줌(Noticing)

‘알아봐 줌’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Kim, 2012: 37). 그 사람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모든 감각정보를 통해 대상자의 미묘한 변화, 표현, 외관, 감정, 욕구, 필요를 인지하는 것이다(Kim, 2012: 38). ‘알아봐 줌’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으며, 자존감이 상승되고 삶이 즐겁게 되었고 기분 좋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Kim, 2012: 38).

간호사가 대상자를 돌보는 체계적인 과정은 간호과정이라 하며, 이는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원종순 외, 2024: 112). ‘알아봐 줌’은 간호사정의 단계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상태를 사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사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계획을 세우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원종순 외, 2024: 97-116), ‘알아봐 줌’은 간호의 필수적 요소이다. ‘알아봐 줌’은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되며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

므로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간호사의 필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시다(시 139).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아봐 주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예레미야 1: 5).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시편 147: 4).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상처를 알아봐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치유해 주신다(시 147: 3).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의 상황도 알아봐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시 147: 9).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시고 나다니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음을 알아봐 주셨다(요한복음 1: 47-48).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아봐 주셨으며, 그의 간절히 낮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봐 주셨다(요한복음 5: 1-8). 예수님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아봐 주셨다. 비록 삭개오가 비난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며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아봐 주셨다(누가복음 19: 1-10).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심의 특성에서 ‘알아봐 줌’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간호는 만나는 대상자를 ‘알아봐 줌’으로 시작할 수 있다. 대상자의 특성, 강점, 질병의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정서적, 영적 영향 등을 알아봐 주기 위해 친절히 다가가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봐 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알아봐 주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알아봐 줌’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간호의 실무를 실천하기 위해 대상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봐 줌’을 위한 도우심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 (2) 동참함(Participating)

‘동참함’이란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2: 39). 이는 대상자와 함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신체, 심리, 영적 측면을 관찰하고 대상자의 경험에 참여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Kim, 2012: 40). ‘동참함’이란 대상자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고, 도와주며, 친구가 되어주고, 부축하여 일으켜주는 것이다(Kim, 2012: 40). ‘동참함’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자신이 버려지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으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Kim, 2012: 40).

‘동참함’은 간호사가 대상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의 참여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의 ‘동참함’을 더욱 증진시킴으로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Benner, 2004: 196-199).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종종 대상자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 자기돌봄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 반면, 대상자가 자신의 치료과정에 ‘동참함’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환자안전, 투약오류의 감소, 약물 순응도 증진, 돌봄의 질 평가 등이 개선될 수 있다(Jiang et al., 2021: 115).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된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들고 있었고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의 팔을 지탱함으로 동참하였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다(출애굽기 17: 8-13).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고 성전 재건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느헤미야 4: 15-20). 중풍에 걸린 친구를 치유시키기 위해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일에 동참하였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죄 사함과 병 나음을 받았다(마가복음 2: 1-12).

예수님의 ‘동참함’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체휼하신 은혜이다(히브리서 4: 15). 사람들은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체휼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를 받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는다. 기독간호는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대상자에게 기꺼이 ‘동참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간호사로서의 ‘동참함’은 대상자와 같은 마음으로 질병의 치유와 건강의 회복, 증진의 목표를 위해 함께 수행하는 활동이다. ‘동참함’은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동참함’은 대상자에게 마음, 시간, 노력, 물질을 내어 놓는 기독간호사에게 주어진 이웃 사랑의 실천적 돌봄이다.

### (3) 공유함(Sharing)

‘공유함’이란 “누군가의 내면에 있는 경계가 개방되도록 이끌어주는, 무조건적으로 준비된 친절한 행동”을 의미한다(Kim, 2012: 41). 이는 삶의 자산(지식, 관심사, 시간, 재능, 꿈, 희망)을 정직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다. 간호사와 대상자가 공통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은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치료적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Kim, 2012: 41). ‘공유함’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감사함과 친밀감,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며, 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하기도 한다(Kim, 2012: 42).

건강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24시간 돌보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치와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

이 가지게 된다. 특히 건강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충분한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박명화 외, 2023: 313-314). 또한 대상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존중하면서 의사결정 결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박명화 외, 2023: 315-316).

리브가는 먼 길로 지쳐 보이는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하인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지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는 친절한 행동으로 ‘공유함’을 실천하였다(창세기 24: 10-20).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창세기 24: 67).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아두는데(마태복음 27: 57-61)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공유함’이라 할 수 있다. 다비다는 병들어 죽었지만 선행과 구제(공유함)가 많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기도 하였다(사도행전 9: 36-43).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는 ‘공유함’이었다(사도행전 2: 43-47).

‘공유함’의 실천은 전문가로서 권위적 태도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잘 설명해 주거나 학습을 도와주는 것, 안내하는 것,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돌봄의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이 관계 속에서 간호사의 상황과 어려움이 공유될 때,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봄에 응답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을 겪을 수 있지만, 대상자로부터 받은 감사와 존중,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 (4) 경청함(Active listening)

‘경청함’이란 “진심으로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2: 42). 대상자가 전달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내면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귀 기울여 듣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는 것, 의견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낱말 하나하나와 그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이루어진다(Kim, 2012: 43). ‘경청함’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하찮게 여겨지지 않으며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졌다고 느낀다(Kim, 2012: 43).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해 ‘경청함’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간호사는 ‘경청함’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그에 맞는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간호사에게도 만족감을 준다(Kourkouta and Papathanasiou, 2014: 67). 대상자가 모든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얼굴표정과 몸동작, 상황을 통해 들어야 한다. 대상

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울부짖음, 움츠러듦, 걱정, 적대감, 냉랭함, 열중함 등의 분노로 표현할 수 있다(정무근, 2009: 2). 적극적 경청은 대상자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한 바를 대상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다(임숙빈, 2009: 45). 대상자의 말을 잘 듣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귀는 대상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귀, 대상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귀, 대상자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듣는 귀라고 한다(정무근, 2009: 3). 간호사의 ‘경청함’은 대상자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대상자가 안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기술이다(임숙빈, 2009: 47).

하나님은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경청하시는 분이시다(열왕기상 19: 4-5). 우리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응답을 경험한다. 또한 ‘경청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하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로 분주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으며,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0: 39-42). ‘경청함’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한 중요한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경청함’을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을 ‘경청함’으로 이해하고 진심과 깊은 갈망을 읽어내셨다(요한복음 4: 7-26).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경청함’은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진정성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경청함’이 중요한 것처럼, 기독간호사가 대상자를 돌보는 관계에서도 ‘경청함’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상자의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는 존중받고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청함’을 통해 대상자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본질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독간호사는 ‘경청함’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대상자와 서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경청함’은 기독간호의 중요한 실천이며,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 (5) 동행함(Companioning)

‘동행함’이란 “사람이 혼자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돌봐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2: 44). ‘동행함’이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에서 함께 있어 줌으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시키는 것으로 함께 걸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필요할 때 곁에 앉아 주는 것 등을 포함한다(Kim, 2012: 44). ‘동행함’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함께 할 누군가가 있어 신뢰감과 기쁨, 안정감을 느끼며,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다

(Kim, 2012: 45).

암환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간호사는 암환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증상관리, 대체보완요법 관련, 간호교육 등 심리적, 사회적 혹은 영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재의 94.4%를 제공하고 있다(오복자·최형지, 2012: 260).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병의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자가 간호행위 및 자가 간호지식을 증진시킨다(오복자·최형지, 2012: 262). ‘동행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감을 넘어서 대상자가 치료과정에서 겪는 불안, 두려움,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하면서 감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질병의 치료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행위에 도움을 준다. ‘동행함’은 대상자가 치료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전문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므로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모압 여인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라며 동행하기를 선택하였다(룯기 1: 1-18). 룯은 시어머니와 동행함으로 이방여인이었지만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 다윗의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룯기 4: 22).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픔과 좌절, 불안 중에 있을 때 동행하시며 예언의 성취에 대해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누가복음 24: 13-32).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관리인 내시가 성경을 깨닫지 못함을 발견하였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사도행전 8: 26-40).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동행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기독간호사로서 매일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무에서 ‘동행함’이 필요한 대상자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때로 대상자는 동행을 거절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주신 대로 대상자와 동행하며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독간호이다.

#### (6) 칭찬함(Complimenting)

‘칭찬함’은 “다른 사람의 강점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2: 45). ‘칭찬함’은 대상자를 지지하고 일상의 삶과 일, 가족,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다는 정신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다(Kim, 2012: 45). ‘칭찬함’은 긍정, 믿어주는 행동, 자신감 북돋우기,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 강점을 지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Kim, 2012: 46). ‘칭찬함’을 받은 대상자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며, 더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

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Kim, 2012: 46).

‘칭찬함’은 긍정심리기반의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의 자기존중과 배려·소통,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조진숙·탁진국, 2018: 45). 또한 ‘칭찬함’은 대상자를 향한 지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가족과 의료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관리 실천정도가 향상되고 생리적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채영란 외, 2020: 29). ‘칭찬함’은 대상자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대상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회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경오·박정연, 2013: 4).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헌금함을 보시고, 그녀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다(마가복음 12: 41-44).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죄 사함의 축복과 함께 사랑함이 많음을 칭찬하셨다(누가복음 7: 36-50).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적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칭찬하였다(갈라디아서 4: 12-15).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사무엘상 16: 1-13).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마음을 칭찬하신다. 기독간호사로서 대상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칭찬함’으로 질병을 극복할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간호사는 대상자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칭찬함의 기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외모나 표현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선부른 칭찬 대신 마음의 중심과 구체적인 행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독간호사가 대상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하게 되면, 대상자는 자존감이 증진되어 질병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 (7) 안위 제공함(Comforting)

‘안위 제공함’은 “공감하는 태도로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고통이나 슬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을 의미한다(Kim, 2012: 46). 대상자의 관점에서 감정을 알아주고 수용하며 강점을 강화시키고 무조건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다(Kim, 2012: 47).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나눌 때, 동의하며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Kim, 2012: 47).

‘안위 제공함’은 전인적이고 총체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안위 제공함을 받으면 심신의 이완, 자기 가치감의 증가, 자기 효능감의 증가, 욕구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김경덕·변혜선, 2005:



390-391). 또한 안위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통증 조절 결과를 평가할 때 통증의 강도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김정희 외, 2016: 185). 안위는 돌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대상자의 회복과정과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안위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간호사가 지각하는 대상자의 안위는 정서적·영적 안정, 수용적 의료환경, 신체적 안녕을 추구하는 세 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나누어지지만,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김금순 외, 2002: 308). 안위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된 안녕상태이므로 대상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김정희 외, 2016: 186).

엘리아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절망감에 빠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원하던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고, 이를 통해 엘리아는 위로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갔다(열왕기상 19: 1-8). 예수님께서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5: 34-40). 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며 회복할 때까지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여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다(누가복음 10: 25-37).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돌볼 때, 신체적 및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안위 제공함’이 하나님의 뜻이다(야고보서 2: 15-17; 로마서 12: 15). 돌봄의 전문가인 간호사는 고통 중에 있는 대상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최선의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의 배경과 상황을 파악하여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8) 희망 불어넣음(Hoping)

‘희망 불어넣음’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 혹은 힘의 원천을 복돋우는 행동”을 의미한다(Kim, 2012: 48). 이는 바라는 결과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가장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Kim, 2012: 48). ‘희망 불어넣음’은 절망하거나 실망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돕거나, 자연을 접하게 하거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등으로 이루어진다(Kim, 2012: 49).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 희망이 불어넣어지면, 대상자는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Kim, 2012: 49).

김부경과 오복자(2022)의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영적 안녕과 자가간호 수행과의 관계에서 희망은 완전 매개 효과가 있었다. 이는 희망이 자가간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희망의 원천이 영적 안녕임을 시사한다(김부경·오복자, 2022: 600). 암 투병 대상자의 희망은 투병의지를 높이고



무력감을 감소시키며 자가 간호행위와 자가 간호역량을 증진시킨다(오복자, 2008: 12 ; 배가령 외, 2017: 213).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종교의 삶에 대한 영향이 있다(이화진·손수경, 2000: 190). 종교의 삶에 대한 영향은 단순히 종교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삶에 종교적인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이화진·손수경, 2000: 192). 또한 용서간호중재가 희망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태영숙·윤수정, 2006: 116).

아브람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이 칠십 오세에 고향인 하란을 떠났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었다(창세기 12: 1-5).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명했으나, 나아만 장군은 분한 마음이 들어 돌이키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근 결과,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열왕기하 5: 1-14).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여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절망하여 자결하려 했으나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음을 보고 희망을 찾았다. 결국 간수와 온 가족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사도행전 16: 25-32).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며(예레미야 29: 11),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고(로마서 8: 24-25), 영혼을 안정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히브리서 6: 19). 희망을 불어넣으면 새로운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게 된다. 간호사로서 질병의 치유만이 희망이라면, 불치의 질병은 절망이 되며, 죽음을 기다리는 호스피스 환자에게도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간호사로서 우리는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대상자에게 희망이 필요한 이유는 질병을 견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준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런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죽음 이후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경 말씀이 대상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이다.

#### (9) 용서함(Forgiving)

‘용서함’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행동이며, 진심어린 표현으로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너그러움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Kim, 2012: 50). 용서를 구할 때는 불필

요한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Kim, 2012: 51). 용서는 쉽지 않으며 시간이 필요하지만, 용서하는 삶은 감동을 준다(Kim, 2012: 51).

용서는 대인관계 상처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재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치료에 대한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다(태영숙·윤수정, 2006: 116). 용서치료 프로그램은 알코올중독자의 분노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강순자·김수진, 2015: 305-306).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해 여러 신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직은 이직률 높은 직업군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용서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다.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가족, 의료진과의 갈등관계를 겪으면서 상처를 받고, 직업적 정체성의 위기 및 자존감 저하로 고통 받기도 한다(조계화 외, 2008: 570). 간호사의 상처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가치 체계와의 갈등이 고조되며 자아 성찰을 통한 용서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용서의 의지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된다(조계화 외, 2008: 571). 용서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영적, 도덕적 요구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요셉은 십칠 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십삼 년 동안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겪었다. 서른 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마흔 넷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팔려간 지 이십칠 년 만에 드디어 재회하였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다(창세기 50: 15-21).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요한복음 8: 2-11).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8: 21-35).

용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심판과 사망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했다. 인간은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6: 12). 질병 중에 있는 대상자는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영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에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 구함’의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용서를 이룬 대상자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 (10) 수용함(Accepting)

‘수용함’은 “어떤 판단이나 비판 없이 대상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의미한다(Kim, 2012: 51). ‘수용함’은 대상자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다(Kim, 2012: 52). ‘수용함’을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며,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Kim, 2012: 52).

‘수용함’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포함하며 간호학에서는 주로 공감의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간호학에서의 공감은 세 가지 속성으로, 인지적 속성으로 환자의 관점과 생각을 인식하는 것, 정서적 속성으로 환자의 정서와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것, 표현적 속성으로 간호사가 이해하고 인식한 바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최선엽, 2019: 153). 간호사의 공감적 관심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김수현·박희옥, 2020: 101), 간호사의 공감만족은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친다(최승혜, 2020: 41).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박인숙, 2018: 1),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상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 자기 수용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과도한 자기 비판을 줄이는 것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고자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말에 능치 못하며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하다고 거듭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모세의 거절에 노하시기도 했지만, 결국 모세의 생각을 수용해 주셔서 형 아론과 함께 가도록 하셨다(출애굽기 4: 10-17).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들렸다고 예수님께 애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셨고 심지어 이방인인 그녀를 개라고 표현하며 외면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다며 겸손하게 응답하였다. 자신이 이방인임을 수용하고 절박한 은총을 바란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 믿음을 수용해 주시며 기도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마태복음 15: 21-28).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항상 기도하던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방문하라고 명하시며,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환상에서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베드로가 거부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며, 베드로가 기존의 유대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수용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사도행전 10: 24-43).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은 다양한 질환과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증상이나 치료의 과정은 대상자의 발달단계, 신체적 상태, 개인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대상자들을 돌보며 경험이 쌓일수록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독간호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수용하신 것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대상자들을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III. 결론

사람돌봄이론은 Kim (2012)이 대상자의 돌봄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전인적 접근의 이론으로, 긍휼(compassion)에 기반을 둔 치료적 돌봄 행동 및 활동이며,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어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사람돌봄이론이 기독교 관점에서 수용가능하며 기독간호실무를 안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돌봄이론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Shelly와 Miller (1999)가 정의한 기독간호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사람돌봄이론의 5가지 가정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7가지 특성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돌봄이론의 10가지 요소인 ‘알아봐 줌’, ‘동참함’, ‘공유함’, ‘경청함’, ‘동행함’, ‘칭찬함’, ‘안위 제공함’, ‘희망 불어넣음’, ‘용서함’, ‘수용함’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그리스도의 돌보심, 그리고 성도들의 돌봄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돌봄이론은 기독간호사가 실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호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간호사는 사람돌봄이론의 각 요소를 기독교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며 실무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간호사로서 명확한 돌봄철학을 정립하고, 간호실무에서 돌봄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기독간호의 이론으로서 사람돌봄이론을 고찰하고 그 적용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람돌봄이론의 10가지 요소에 대해 더욱 다양한 성경적 견해와 이야기가 탐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람돌봄이론을 기독교 관점으로 배우는 기독간호 프로그램 개발과 기독간호사의 삶과 임상실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순자·김수진 (2015). 용서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자아존중감, 분노 및 용서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4(4), 300-309.
- 김경덕·변혜선 (2005). 안위(Comfort)에 대한 개념 분석. **대한보건대학논문집**, 25, 381-395.
- 김금순·김경희·강지연·서현미·송경애·원종순·정인숙·정혜경 (2002).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환자의 안위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9(2), 300-310.
- 김부경·오복자 (2022). 영적 안녕이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 **성인간호학회지**, 34(6), 592-601.
- 김수지 (2010).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서울: 비전과리더십
- 김수현·박희옥 (2020).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및 공감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교육학회지**, 26(2), 101-110.
- 김정희·임승철·노성우·이순진·고영미·김여옥·신용순 (2016). 순차적 냉·온 요법이 척추 수술 후 통증과 통증 조절 만족도, 안위, 주관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3(2), 184-193.
- 김희영 (2020). 사람 돌봄 이론을 적용한 국내 간호연구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27(2), 116-128.
- 박명화·김진주·정지혜 (2023). 만성질환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공유적 의사결정 역할 인식: 질적 서술적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25(3), 309-319.
- 박인숙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 **한국간호연구학회지**, 2(1), 1-11
- 배가령·임영순·노기옥·손유정·서한길 (2017). 림프부종을 가진 여성 암 환자의 희망, 자가간호역량과 삶의 질의 관계. **종양간호연구**, 17(4), 213-219.
- 신국원 (2006).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생명문화. **신학지남**, 73(3), 166-182.
- 원종순·양선희·이정인·김영주·신미경·최정실·김민숙·김지수·반금옥·윤순영·이은경·이혜순 (2024). **기본간호학 I**. (제5판). 서울: 현문사.
- 여민정 (2016). **마더 테레사의 서번트 리더십과 진정성**.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예병일·박주연·김나현 (2022). 사회개혁운동가 나이팅게일의 유산: 문헌고찰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28(3), 200-213.
- 오복자 (2008). 영성·희망증진 프로그램이 암 환자의 투병의지, 무력감, 불안 및 자가 간호행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0(1), 65-76.
- 오복자·최형지 (2012). 암환자교육이 암환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자가간호지식 및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종양간호연구**, 12(4), 257-266.
- 이광자·김경희·김석선·김수·민소영·박애란·박향진·신지원·안영미·유소연·이숙·이옥자·이정섭·전효경·최윤정 (2017). **사람 돌봄**. Kim, S. (2012). *Interpersonal Caring*. 경기도: 수문사.

- 이원희·이혜숙·임현아·정진옥·이동구 역 (2002). **신앙인의 눈으로 본 건강과 돌봄**. Shelly, J. A. & Miller, A. B. (1999). *Called to care: A Christian Theology of Nursing*. 서울: 대한기독교간호사 협회출판부.
- 이원희·김경아·김달숙·장성옥 역 (2011). **간호학에서 이론적 사고의 본질**. Kim, H. S. (2010).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3rd ed. 서울: 현문사.
- 이화진·손수경 (2000). 암환자의 희망 예측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2(2), 184-195.
- 임숙빈 (2009). 간호사-대상자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동적 경청과 피드백. **의료커뮤니케이션**, 4(1), 43-48.
- 장경오·박정연 (2013). 뇌졸중 자조교실 프로그램이 재가 뇌졸중 환자의 질병 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근관절건강학회지**, 20(1), 1-9.
- 정무근 (2009). 지면보수교육 - 경청을 통한 영적 돌봄 - 호스피스 환자를 중심으로 -. **호스피스**, 45, 2-4.
- 조계화·성기월·김영경 (2008). 이직을 고려해 본 임상간호사의 상처와 용서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8(4), 561-572.
- 조진숙·탁진국 (2018). 긍정심리기반 의사소통향상 코칭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존중, 배려·소통,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2), 45-62.
- 채영란·강효영·이선희·조영미·구현주 (2020). 혈액투석 환자의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와 환자역할행위 이행 및 생리적 지표의 관계.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1), 24-32.
- 최선엽 (2019). 공감에 대한 개념분석. **기본간호학회지**, 26(3), 145-154.
- 최승혜 (2020).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환자간호학회지**, 13(2), 36-44.
- 태영숙·윤수정 (2006). 용서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여성 암환자의 희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간호학회지**, 6(2), 111-120.
- 한미영·손수경 (2014). 한말·일제강점기 내한 간호선교사의 사역 연구. **신앙과 학문**, 19(3), 213-250.
- Benner, P. (2004). Using the Dreyfus model of skill acquisition to describe and interpret skill acquisition and clinical judgment in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24(3), 188-199.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618> Accessed 2025. 01.08
- Jiang, N., Sun, M. M., Zhou, Y. Y. & Feng, X. X. (2021). Significance of patient participation in nursing care. *Altern Ther Health Med*, 27(5), 115-119.
- Kim, S. (2012). *Interpersonal Caring*. Gyeonggi: Soomoonsa.
- Kim, S. (2002). Interpersonal techniques: Concepts and quasi-experimental research. in Kashima H., Falloon I. & Mizuno M. A. (Ed.). *Comprehensive treatment of schizophrenia 2020*.



- Tokyo: Springer. (pp. 238-245)
- Kim, S. & Kim, S. (2007a). Interpersonal caring: A theory for improved self-esteem in patients with long-term serious mental illness - I. *Asian Nursing Research*, 1(1), 11-22.
- Kim, S. & Kim, S. (2007b). Interpersonal caring theory: An empirical test of its effectiveness utilizing growth curve analysis - II. *Asian Nursing Research*, 1(3), 187-198.
- Kittel, G., Bromiley, G. W. & Friedrich, G. (1985).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Kourkouta, L. & Papathanasiou, I. V. (2014). Communication in nursing practice. *Mater Sociomed*, 26(1), 65-67.

# 사람돌봄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 A Christian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Caring Theory

김 희 영 (동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관점에서 사람돌봄이론을 고찰하여 기독교간호사의 실무에서 돌봄 실천을 위한 적용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돌봄은 긍휼(compassion)에 기반을 둔 치료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기독교간호의 실무를 위한 돌봄이론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람돌봄이론의 5가지 가정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람돌봄이론의 7가지 특성이 성경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돌봄이론의 10가지 요소인 알아봐 줌, 동참함, 공유함, 경청함, 동행함, 칭찬함, 안위 제공함, 희망 불어넣음, 용서함, 수용함은 성경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그리스도의 돌보심, 성도들의 돌봄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람돌봄이론은 기독교간호사가 실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 기독교간호사가 사람돌봄이론의 각 요소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관련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무에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람돌봄이론, 간호, 기독교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 &lt;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gt;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 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이윤리, 2007b: 27)

⑩ 한글 번역서 인용의 경우: (Jackson, 전광철 역, 2013: 7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

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CESS>. (검색일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 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손화철 (한동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송재일 (명지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신응철 (숭실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 신앙과 학문

제30권 제1호 (통권 102호), 2025년 3월호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운

인쇄 (주) 에스제이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